

# 1920년대 평양부협의회 선거와 조선인 지역유력자의 ‘혈연-공간적’ 변동\*

주 동 빈\*\*

1. 서론
2. 유산자·정주자·남성 세대주라는 자격, 평양부라는 가늠자
3. 선출자: 『민선』 전환과 구심점 형성
  - 1) 1910년대: 임명제와 민족별·공간별 구성의 불일치
  - 2) 1920년 선거: 일본인 세대 갈등과 낮은 조선인 투표율
  - 3) 1923년 선거: 구시가 구심점의 조선인 약진
  - 4) 1926년 선거: 평양전기(주) 부영화와 조선인의 수적 압도
  - 5) 1929년 선거: 부역 확장, 대기업 개입, 조선인 전문직 대두
4. 지역사회: 『토성(土姓)』 잔존과 업종·구역이란 새로운 구심점
  - 1) 업종의 민족별 구심점과 조선인 전문직 약진
  - 2) 조선인 지역유력자의 ‘혈연-공간적’ 변동
5. 결론

## 1. 서론

한국 사회의 특징으로 논의되는 ‘강한 국가, 약한 사회’란 국가-가족 사이의 중간단체가 취약하다는 의미이다. 17~19세기 조선에서는 ‘유교화 과정’에서 광

\* 본 논문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2021년도 ‘21세기 신규장각 자료구축사업-한국학 학술대회 지원’을 통해 만인만색연구자네트워크 ‘식민지 개발’팀과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한국 근대 사회경제사 연구의 최전선』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의의 혈연집단으로서 문중 조직이 형성되어 중요한 중간단체 역할을 했다.<sup>1)</sup>

서북지방은 이 질서의 약한 고리이자, 근대 실력양성론의 중심지로 여겨진다. 식민지 평양은 분단 후 한국에서 월남민들에 의해 실력양성론 매개의 『민족주의』 지향이란 자기 서사로 표상되었다.<sup>2)</sup> 그런데 실력양성론은 교육·산업진흥론이다. 즉, 식민권력과 지역개발론에서 접점을 가진다. 무엇이 『민족주의』였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지역개발, 『민족주의』적 자기 서사를 만든 조선인들, 그리고 여기서 누락된 조선인들의 '혈연-공간적 배치'의 관계를 통한 지역사회 변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식민지 개발 연구는 일본 본국과 식민지 행정기구, 대자본과 일본인 지역사회에 집중한다.<sup>3)</sup> 조선인은 개발난민<sup>4)</sup>과 유산자·정주자·남성 세대주인 지역유력자의 양자로 대별되어 분석된다. 단, 조선인 지역유력자 내부의 다층성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부(협의)회는 도시인프라를 매개로 『유지집단』을 구성하는 기구였다.<sup>5)</sup> 따라서

- 1) 그레고리 헨더슨(이종삼·박행웅 옮김), 2013(2000) 『소용돌이의 한국정치』, 한울아카데미; 기시모토 미오·미야지마 히로시(김현영·문순실 옮김), 2014 『조선과 명청』, 너머북스, 492-501면. 단, 미야지마 등의 식민지기 변용에 대한 입장이 명확하다고 하기는 어렵다(마츠모토 다케노리, 2015 『'전후' 일본에 있어서의 조선근대경제사연구의 계보』 『역사문화연구』 53, 92-93면).
- 2) 金東元, 1949 『平壤人氣質과 그 出身人物들』 『民聲』 5-12; 1949 『오승은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자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이하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참조.
- 3) 최근 논의로는 전성현, 2021 『식민지 철도와 도시』, 선인 참조.
- 4) 梁 知惠, 2020 『植民地期朝鮮における日本窒素の水力發電所建設と『開發難民』問題』 『日韓相互認識』 9.
- 5) 기유정, 2007 『1920년대 京城의 '有志政治'와 京城府協議會』 『서울학연구』 28. 부(협의)회 연구는 ① 제도적 식민성, ② ① 이면의 역동성, ③ ② 이후 인프라와 관련된 부(협의)회 구성 변동과 운동사적 맥락을 다룬 연구로 대별할 수 있다. ① 姜東鎮, 1980 『日帝의 韓國侵略政策史』, 한길사; 孫禎睦, 1992 『韓國地方制度·自治史研究(上)』, 일지사; 姜再鎬, 2001 『植民地朝鮮의 地方制度』, 東京大學出版會. ② 나미키 마사히토, 2010 『식민지기 조선에서의 '공공성' 검토』 『식민지 공공성, 실체와 은유의 거리』(윤해동·황병주 편), 책과함께; 김동명, 2018 『지배와 협력』, 역사공간. ③ 전성현, 2016 『일제강점기 행정구역 확장의 식민성과 지역민의 동향』 『지방사와 지방문화』 19(1); 김운정, 2016 『1920년대 부협의원 선거 유권자대회와 지역 정치의 형성』 『사림』 55; 2017 『1930년대 함흥부회와 전주부회의

지역 내 개발 논의의 주축이었고, 『공직 3단체(지방의회·교육단체·상업회의소)』 중 하나였으며<sup>6)</sup>, 지방의회 중 가장 '자치' 기관에 가까웠다.<sup>7)</sup>

다만 이 이식된 '근대'적 기구는 지역의 어떤 특성과 결합되었는가. 평양은 첫째, 전통도시로서 명실상부한 제2도시였다. 둘째, 실력양성 및 외교독립 지향이 대단히 강했다. 1919년 3·1운동 이후 도지사는 재평양 조선인이 사상적 지향을 불문하고 높은 문해력, 미국·중국·러시아 등에 대한 높은 기대, 반일감정을 가진 점에 주목했다.<sup>8)</sup> 반면 셋째, 평양부협의회는 워싱턴회의(1922) 직후인 1923년 선거에서 경성보다 높은 조선인 투표율을 보였으며, 1939년 전조선적 조선인 약진보다<sup>9)</sup> 13년 앞선 1926년 조선인이 과반수 당선되었다. '개발'·'자치' 지향의 조선인 실력양성론의 다양한 갈래가 나타나는 지역사회였던 것이다.

의외로 평양부(협의)회 연구는 거의 없다. 가지무라(梶村秀樹) 이후 ㉠ 조선인 「자본가」를 타협-비타협 구도로 다룬 경제단체의 초기 연구, ㉡ 이들이 식민지 경제정책과는 별개로 약진했다는 연구가 등장했다.<sup>10)</sup> 조선인 지역유력자의

구성과 활동』 『사람』 60: 2019a 「1920년대 조선 사회주의 정치세력의 의회정치와 '지방의회' 인식』 『사람』 69: 2019b 「1920~1930년대 개성 '지방의회'의 특징과 인삼탕 논의』 『역사연구』 37: 조명근, 2017 「1920~30년대 대구부협의회·부회 선거와 조선인 당선자』 『대구사학』 129: 2019a 「일제시기 대구부 도시 개발과 부(협의)회의 활동』 『민족문화논총』 71: 2019b 「1920~30년대 대구·함흥 지역의 전기 공영화 운동』 『史叢』 97.

6) 전성현, 2021 앞의 책, 20-21면.

7) 대표적 개항도시(부산)·전통도시(경성) 부협의회를 다룬 연구는 홍순권, 2010 『근대도시와 지방권력』, 선인: 엽복규 외, 2017 『일제강점기 경성부윤과 경성부회 연구』, 서울역사편찬원 참조.

8) 朝鮮總督府, 1919.10 『(秘)道知事會議速記録』, 43-51면: 1920.9 『(秘)道知事會議速記録』, 43-48면: 1921.4 『(秘)道知事會議速記録』, 45-48면.

9) 김동명, 2018 앞의 책 참조.

10) ㉠ 강명숙, 2000 「1920년대 日本人 資本家들에 대한 朝鮮人 資本家들의 抵抗」 『國史館論叢』 90: 오미일, 2002 『한국근대자본가연구』, 한울: 오미일, 2004 「1908~1919년 平壤磁器製造株式會社の 설립과 경영」 『동방학지』 123: 강명숙, 2005 「한일합병 이전 일본인들의 평양 침투」 『國史館論叢』 107: 오미일, 2007 「평양지역 조선인자본가들의 조합 조직과 공업 발달」 『한국사연구』 137. ㉡ 주익중, 1994 「日帝下 平壤의 메리야스工業에 관한 研究」, 서울대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김두열, 2017 「식민지 조선의 공업화」 『한국경제사의 재해석』, 해남.

평양부(협의)회 진출이 활발했던 만큼, 타협-비타협 구도를 선협 전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부 연구의 중심축은 재정, 부역(府域), 사람이다. 최근 평양부의 2가지 특징이 지적되었다. ㉠ 지방재정과 민족별 업종차의 관계다. 조선에서 유일하게 일본 시의 주요 세원이었던 부영전기가 있었고, 산업연관성상 조선인 상공업자들이 개입했다.<sup>11)</sup> ㉡ 지역개발과 공간 변동의 관계다. 제국 내 평양의 공업적 위상 변동에 따라 평원선 기점이 서평양으로 바뀌고 1929년 구시가(조선인 시가)가 우선 개발되기 시작했다.<sup>12)</sup> 반면 경성과 달리 평양 신시가가 조선인 전통유력자의 세거지<sup>13)</sup>였던 점은 식민지기 연구에서 주목되지 않았다.

〈표 1〉 1920년대 구시가·신시가 조선인 지역유력자의 구심점

	구시가 조선인 지역유력자	신시가 조선인 지역유력자
명망	· 상공업·전문직 · 구시가 개발(조선인 상공업자 결부)	· 혈연·관료 경험(문중 조직, 대한제국 관료, 능참봉=「단군·기자 계승의식」) · 신시가 개발(재평양 일본인 원로들과 결부)
단체	· ‘공직단체’: 평양부협의회 · 동우회 계열(『동아일보』 지국), 평양상공협회 · 재평양 일본인 중 혁신회(신세대)와 결부	· ‘공직단체’: 평양학교평의회 · 평남유림(연합)회, 대동동지회 · 재평양 일본인 중 공정회(원로)와 결부
지향	· 실력양성론 공유 / 산업진흥론 무게	· 실력양성론 공유 / 교육진흥론 무게

본고는 1910~20년대 평양부협의회에서 조선인의 ‘혈연-공간적’ 전환을 분석한

11) 주동빈, 2020 『평양부(협의)회의 동상이몽과 부영전기 ‘재사영화’(1927~1937)』 『역사학보』 248.

12) 주동빈, 2021 『『平壤對岸市街計畫』의 중단(1919~1923)과 조선인 시가 우선 개발로의 귀결』 『도시연구: 역사·사회·문화』 28.

13) 김선주는 1933년 평양의 『향안』(18번 각주 ㉢)을 통해 재록된 성관이 『주변화된 사족』이라고 했다. 반면 권내현은 지역적 특수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김선주, 2015 『조선후기 평양의 사족(士族)』 『국학연구』 27, 88-108면; 권내현, 2015 『김선주 『조선후기 평양의 사족』』 『조선시대 지역엘리트, 사족』(한국국학진흥원 편), 122-124면]. 그러나 ㉢이 1933년 자료인 점을 생각하면, 사족 여부보다는 지역유력자 변동이란 관점에서 독해할 필요가 있다.

다. 기존 연구사의 논점상<sup>14)</sup> 다음 내용을 주로 다룬다. 첫째, 「민선」 평양부협의회는 지역개발 가운데 전통적 혈연집단과는 어떻게 연속·단절되었는가.<sup>15)</sup> 둘째, 지역유력자의 전제로서 ① 재산과 ② 학력, 그리고 결과로서 ③ 사회인망과 ④ 당국신용이 있다면 ③과 ④는 충돌했는가.<sup>16)</sup>

가설은 <표 1>과 같다. 1920년대 재평양 조선인 지역유력자는 구역별로 구심점이 되는 명망의 종류(근대적 업종, 혈연), 구역(구시가, 신시가), 단체(공직, 여타 단체)가 달랐다. 실력양성론은 공유하면서도, 지역유력자의 '혈연-공간적' 구성상 무게중심이 각각 산업진흥론과 교육진흥론으로 달랐다. 식민권력은 둘 다 부담스러워했지만, 후자를 지배파트너로 선호했다. 반면 부협회의의 '민선' 전환으로 1910년대에는 일치하지 않았던 민족별·구역별 구성이 일치하는 것으로 전환되었고 구시가 조선인 지역유력자가 약진하게 되었던 것이다.<sup>17)</sup>

관련해 2장에서는 유권자 자격이 일본인 우위로 귀결되지 않았던 평양부가 식민지 지방제도 개정의 가능성이 된 점을 살핀다. 3장에서는 선거별 쟁점과 선출인물을 다룬다. 4장에서는 주로 조선인 의원의 업종-민족적, '혈연-공간적' 구심점을 확인한다. 자료는 사이트 문서, 상업회의소 및 부 관련 사료, 그리고 잡지, 신문, 읍지, 족보 등을 활용한다.<sup>18)</sup>

14) 지면상 지역유력자 연구의 논점은 박찬승, 2006 「서론」 『근대이행기 지역엘리트 연구 I』 (충남대 내포지역연구단 편), 경인문화사, 15-22면 참조.

15) 본고는 「신흥유력자=향리」설과는 거리를 둔다. 조선후기 서북지방은 처음부터 사족이 형성되지 않아 향임층이 사족 역할을 대행했다는 것이 일반적 학설이기 때문이다. 지면상 연구사는 이영호, 2013 「鄉人에서 平民으로」 『한국문화』 63, 80면 참조.

16) 지수걸, 1999 「구한말·일제초기 유지집단의 형성과 향리」 『한국근대이행기 중인연구』 (연세대 국학연구원 편), 신서원. 단, 이 정의에서 ①②는 전제적 요소, ③④는 결과적 요소이며 ③④는 서로 판단을 내리는 주체도 다르다. 정태적으로 귀결되지 않으려면 ③④의 역동성 분석이 필요하다.

17) 본고는 러일전쟁 이후 재평양 일본인 거주방식 기조가 '잡거(雜居)'에서 사실상 '분거(分居)'로 전환되었다는 입장[박준형, 2015a 「청일전쟁 이후 일본인의 평양 진출과 평양성 내에서의 '잡거' 문제」 『비교한국학』 23(3), 41-44면]에 별다른 이견이 없다. 다만 조선인 사회 내의 공간적 중심축의 차이에 주목한 것이며, 그 이후의 민족·공간별 이합집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고를 기하겠다.

18) 주요 사료는 번호로 작성했다. 아래 ⑧, ⑭ 등 식민지기 평양의 읍지류는 이은주, 2021 「평양인의 자기 인식」 『한국문화』 94 참조. ① 한국사데이터베이스: ① 中西未銷, 1914 『平壤と人物』, 平壤日日新聞社; ② 平壤民團役所 編, 1914 『平壤發展史』; ③ 平壤商業會議

## 2. 유산자·정주자·남성 세대주라는 자격, 평양부라는 가늠자

평양은 식민지기 전통도시로서 명실상부한 제2도시였지만, 「병합」 전 평양의 위상은 유동적이었다. 러일전쟁 이후 좌절되었지만, 1902년 대한제국 정부는 평양에 서경을 설치하고 양경제를 실시하고자 했다.<sup>19)</sup> 지방제도상에서 보면 평양은 1895년 부에서 군이 되었고, 1906년 일본 거류민단이 결성되었지만 「병합」 이후에야 부가 되었다.<sup>20)</sup>

즉, 평양은 민족 간 힘관계에서 독특성을 가진 전통도시 부였다. 「병합」 후 일본인 유력자가 조선인 유력자를 수적으로 압도하지 못했고, 1926년 부협의회에서 조선인이 과반수 당선되었다. 본 장에서는 유권자의 제도적 범위와 평양부의 위상을 우선 확인하겠다.

〈표 2〉 평양부(협의)회 호수, 유권자 수, 유권자/호수(1920~35)

	戶數*		유권자 수		유권자 민족비 (일본인=1)		유권자/호수(%)	
	日	鮮	日	鮮	日	鮮	日	鮮
1920.11	4,576	12,518	524	558	1	1.06	11.5%	4.5%
1923.11	6,427	17,786	838	1,419	1	1.69	13.0%	8.0%
1926.11	7,202	21,970	779	1,316	1	1.69	10.8%	6.0%
※ 1928.9	7,645	23,529	1,711	2,447	1	1.43	22.4%	10.4%
1929.11	8,120	28,393	1,184	1,556	1	1.31	14.6%	5.5%

- 所, 1917 『平壤商工案内』; ④ 靑柳綱太郎, 1917 『新朝鮮成業銘鑑』, 朝鮮硏究會; ⑤ 平壤商業會議所, 1919 『平壤商工人名簿』; ⑥ 1921 『平壤商工人名簿』; ⑦ 1925 『會員名簿(大正14年4月1日現在)』; ⑧ 1927 『平壤全誌』; ⑨ 藤村德一 編, 1927 『(朝鮮) 公職者名鑑』, 朝鮮圖書刊行會; ⑩ 平壤商業會議所, 1930 『會員名簿(昭和5年8月1日現在)』; ⑪ 葦原煉斗玄, 1930.8~12 『平壤人物八面觀』(1)~(5) 『拓務評論』 2-8~12(각 연재호수는 ⑩-①, ⑩-③ 등으로 표기); ⑫ 1933.5 『平壤府公職者一覽』 『平壤彙報』 22; ⑬ 金輔鍵, 1933 『箕城儒林名家世誼譜』, 三共出版所; ⑭ 弦問孝三, 1934 『平壤大誌』, 衛生彙報社; ⑮ 日本辯護士協會, 1934 『日本辯護士名簿』; ⑯ 1935.6 『府會議員年齡別得票番付』 『平壤彙報』 47.
- 19) 박준형, 2015b 「1899년 평양개시 이후 평양성 외성 공간의 재편 과정」 『한국학연구』 39, 120-126면.
- 20) 孫禎睦, 1992 앞의 책, 75-80면.

1931.5	4,925	25,856	2,799	2,765	1	0.99	56.8%	10.7%
1935.5	4,912	31,541	3,024	3,445	1	1.14	61.6%	10.9%

출처: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14~42년판: 平安南道知事→內務局長 殿, 『府ニ於ケル納稅者數調査ノ件(對7月31附照會)(機密第203號, 1928.9.11.)』, 『(昭和6年4月)改正地方制度關係(其ノ一)』(內務局 地方課 編), CJA0002881, 135~136면; 『(秘)選舉制度ノ沿革並ニ現狀』, 663~728면; 1935.4 『逐鹿年の回顧』, 『平壤彙報』 45, 42~43면.

비고: ① 『통계연보』의 호수는 그 해 12월 기준, 1922~32년 호수 통계는 「주거」와 「세대」로 나뉘므로, 「세대」로 작성 ② ※는 1928년 9월 집계된 자료에 근거한 수치

우선, 첫째, 1920년대 「공직 3단체」 중 부협의회는 유권자 범주가 넓어 평양처럼 조선인 자산가가 많을 경우 이들의 여론을 수적으로 가장 광범위하게 반영할 여지가 있었다. 그리고 교육 쟁점을 다루는 학교평의회에 비해 상공업자의 개입 여지가 컸다.

① 부협의회는 도시인프라와 재정·상공업 쟁점을 다루었다.<sup>21)</sup> 1920년 '민선' 전환시 유권자는 ㉠ 총독 지정의 부세 5엔 이상 납부자, ㉡ 1년 이상 거주자 ㉢ 「독립생계」를 영위하는 25세 이상 남자였다.<sup>22)</sup> 즉, ㉠ 유산자, ㉡ 정주자, ㉢ 남성 세대주라는 공통분모를 가졌다.

교육단체를 보면, ㉡-㉣ 1920년대 학교평의회(조선인)의 경우 ㉡~㉣는 같지만, ㉠ 학교비부과금 연액 5엔을 납부해야 유권자였다.<sup>23)</sup> 반면 ㉡-㉣ 학교조합(일본인)은 1914년에 이미 지역별 구역 설정과 유권자 자격에 제한규정이 없었다.<sup>24)</sup> 평양학교조합은 1914년 이후 여전히 대동군 일부를 구역에 포함했다. 1926년 이후에는 1년 이상 구역 내 거주한 20세 이상의 남성이 조합비를 약간이라도 부담하면 투표권을 주었다.<sup>25)</sup>

21) American Consulate General→The Secretary of State, Washington, "Elections of Municipal and Village Councillors(1920,12,3, Seoul, Choson, No. 53)", RG59, M426, Roll 3-2.

22) 『府制施行規則中左ノ通改正ス(朝鮮總督府令第102號, 1920.7.29.)』, 『朝鮮總督府官報』 號外, 1920.7.29, 중 제2조 2항 참조.

23) 『朝鮮學校費令施行規則(朝鮮總督府令第104號, 1920.7.29.)』, 『朝鮮總督府官報』 號外, 1920.7.29, 중 제2조 참조. 경성부 학교평의회 사례는 최병택, 2017 『1920년대 부 학교평의회 의 구성과 학교비(學校費) 논란』, 『한국문화』 77 참조.

24) 『學校組合令施行規則(朝鮮總督府令第6號, 1914.1.25.)』, 『朝鮮總督府官報』 號外, 1914.1.25, 중 제2조 참조.

25) 『朝鮮總督府告示第107號(1914.4.6.)』, 『朝鮮總督府官報』 第502號, 1914.4.6.: 『無効爭ひは

한편, ③ 평양상업회의소는 조선인 회원이 다수였지만, (부) 영업세 12~16엔이란 높은 문턱의 회원 자격(〈표 11〉)과 평의원의 민족별 정원제로 일본인 우위가 유지되었다.<sup>26)</sup>

둘째, 부협의회 유권자는 정주자로서 남성 지역유력자였다(㉞㉟).<sup>27)</sup> 유권자 자격 ㉞~㉟는 일본 본국의 「시제」·「정촌제」를 참고했다. ㉟ 「독립생계」 규정은 일본 본국에서 보통선거권 논의에 맞서 급진적 분위기의 제도적 반영을 막기 위한 남성 「가장(호주)선거제」론의 근간이었다. 비록 1914년 행정재판소 판결로 「세대주」 지칭이 확정되었지만, 개념 자체의 모호성도 있고 도시화·공업화가 덜 진전될 경우 가장·호주로 해석될 여지가 남았다.<sup>28)</sup> 즉, 부협의회 유권자 비율은 인구 수가 아닌 「세대(世帯)」로서 호수<sup>29)</sup>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

셋째, 1920년대 유권자 수는 조선인이 항상 수적 우위에 있었고(〈표 2〉), 평양부는 1930년 「부세」 개정 전 유권자 자격의 가늠자가 되었다. 1929년 총독부는 조선인의 과반수 점유(민족)와 급진적 청년(세대) 진출을 막으려는 의도에서 지방제도 개정을 추진했다. 1928년 통계를 참조로 하여, 유권자 기준이 되는 1) 부세 액수(1~10엔), 2) 부세 범주에 학교 관련 비용 포함 여부를 고민했다. 현재 대로 5엔 기준에 학교 관련 비용을 미포함하면 12개 부 중 경성·마산·평양이, 포함하면 평양만 조선인 다수가 되었다.<sup>30)</sup>

그런데 1930년 『동아일보』는 평양부의 조선인 유권자의 수적 우위가 처음으로

當選者の勝利』 『朝鮮新聞』 1926.5.28. 이하 「고시」는 제목을 생략한다.

26) 전성현, 2012 『일제시기 조선 상업회의소 연구』, 선인, 79-87면 참조.

27) 한국사에서는 읍회 연구이나 「민족·계급·도농·젠더차별성」이란 개념을 참고할 수 있다[전성현, 2019 「일제강점기 '민이'가 있는 바를 표현'하는 장소로서의 읍회와 그 한계」, 『지방사와 지방문화』 22(2)]. 다만, 선출기준상 '정주성'과 개별 지역의 특수성이 확인될 필요가 있다.

28) 磯野誠一, 1956 「家長選舉制論」, 『法社會學』 7·8 참조.

29) 『朝鮮總督府統計年報』의 「호수(戶數)」 개념은 서호철, 2007 『1890-1930년대 주민등록제도과 근대적 통치성의 형성』,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26-235면 참조. 부협의회 유권자 수의 시기별 변동과 관련해 살펴볼 여지가 있지만, 지면상 추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30) 「(秘) 選舉制度の沿革並現狀」(1990 『齋藤實文書』 2, 고려서림, 690-709면. 이하 인용시 문서와 영인본 기준 면수만 표기). 이 문서는 1929년 중, 그리고 11월 선거 이전에 작성되었고, 납세자 통계는 1928년 수합한 것이다(698·724-727면).



무너질 것을 확인했다.<sup>31)</sup> 왜 그랬나. 우선 1929년의 유권자 변동은 1) 1927년 제1차 세제정리에 따른 부 호별세의 소득세식에서 호수할식으로의 전환<sup>32)</sup> 때문이었다. 1926년 11월 유권자 민족비는 조선인이 1.69배였으나, 1928년 9월 1.43배로 줄어들었다.

2) 1929년 4월 평양부 부역 확장 때문이었다. 확장은 동양척식(株)계(이하, '동척', '동척계')가 점유하던 선교리를 포함했다.<sup>33)</sup> 따라서 1929년 11월 전체 호수는 조선인이 훨씬 많이 늘었지만, 유권자/호수 비율은 반대로 나타났다(<표 2>).

3) 1929년 경제사정 악화도 요인으로 보인다.<sup>34)</sup> 1929년 11월의 유권자는 전년도 예상에 비해 양 민족 모두 30% 이상 감소했다(<표 2>). 1930년 12월 재평양 일본인 호수가 전년도 대비 40% 이상 감소(8,120→4,596호)한 것도 경제사정의 영향 때문인 듯하다.<sup>35)</sup>

결국 1931년 5월 평양부회에서 조선인 유권자의 수적 우위가 처음 무너졌다. 1930년 12월 「부제」 개정으로 학교 관련 비용을 포함한 부세 5엔 이상이 유권자 기준이 되었다. 일본인 유권자/호수 비율은 56.8%에 육박했고, 조선인은 10.7%로의 증가에 그쳤다(<표 2>).

즉, 「공직 3단체」 중 부협의회는 조선인 지역유력자들에게 재정·상공업적 쟁점을 다루는, 유권자 범주가 가장 넓은 단체였다. 평양에서는 납세액에 따른 유권자 자격이 유권자의 민족적 열위로 직결되지 않았다. 오히려 일본인들에게 유권자와 의원의 수적 열세는 때로 위협적이었다. 심지어 마지막 평양부협의회에서는 일본인 의원이 총퇴장을 하기도 했다. 조선인이 다수를 차지하여 의사결정 상 횡포하게 행동한다는 이유였다.<sup>36)</sup>

31) 「地方自治制實施로 日本有權者倍增」 『동아일보』 1930.11.28.

32) 「(秘) 選舉制度の沿革並現狀」, 706-709면. 소득 표준에서 자산·소득·생계 정도를 표준으로 바꾼다는 의미이다(朝鮮總督府內務局 編, 1937 『朝鮮ニ於ケル地方稅制整理經過概要』, 25-26면).

33) 1929년 편입 구역과 동평양의 위상에 대해서는 주동빈, 2021 앞의 논문, IV장 2절 참조.

34) 1929년 평양의 어음부도는 전년도에 비해 매수, 금액 모두 약 3배 늘었다(1930.9 『平壤の不渡益々増加の傾向』 『平壤商業會議所調査彙報』 2, 50-51면).

35) 1929~30년 재평양 일본인 업종별 호수는 공업, 상업·교통업, 기타 유업자 범주만 약 50~60%로 급감했다(平壤商工會議所, 1931 『(昭和五年)統計年報』, 203면).

36) 平壤府尹→平安南道知事 殿, 「府協議會狀況報告(平府秘第66號, 1931.4.4.)」 『(昭和六年

단, 부(협의)회 유권자는 유산자, 정주자, 남성 세대주였던 점을 재차 강조해 둔다. 그렇다면 1920년대 평양부에서는 어떤 조선인(민족)·청년(세대)가 약진하고 있었나.

### 3. 선출자: 「민선」 전환과 구심점 형성

〈표 3〉 평양부협의회의 민족별·구역별 구성(1914~1931)

		1-1기	1-2기	1-3기	1-4기	1920년	1923년	1926년	1929년
日	舊	2	2	2	2	2	0	0	(2)
	新	3	4	4	4	11	10	11	11
	합	* 6	6	6	6	13	10	11	13
鮮	舊	4	3	4	4	5	8	15	15
	新	2	3	2	2	2	2	4	2
	합	6	6	6	6	7	10	19	17

출처: 〈부록 1. 2〉

비고: ① 1-1기의 일본인 1명은 구역 미상(\*) ② 新=신시가=町 단위, 舊=구시가=里 단위. 단, 1929년 일본인 구시가 당선자는 리 단위이나 모두 신편입 구역 선교리 이므로 괄호 표기

〈표 4〉 평양부협의회의 직업 구성(1914~1931)

		1-1기	1-2기	1-3기	1-4기	1920년	1923년	1926년	1929년
日	官								
	專		1			1	1		2
	商	5	5	6	6	12	8	10	10
	他	1					1	1	1
	합	6	6	6	6	13	10	11	13
鮮	官	6	5	5	5				
	專					1	3	7	10
	商		1	1	1	6	6	10	7
	他						1	2	
	합	6	6	6	6	7	10	19	17

출처: 〈부록 1. 2〉

비고: 官=관직(참봉) 경험자, 專=전문직, 商=상공업, 他=기타(농업, 전 인민총대 등), 合=합계. 他를 제외하고 상공업 이외 다른 직업이 있을 경우 그것으로 표기

度)平壤府關係書』(內務局 地方課 編), CJA0002866, 256-266면. 이하 국가기록원 자료는 재인용시 철 제목과 생산자는 생략하고 건 관련 정보와 문서번호만 표기한다.

〈표 5〉 평양부협의회 의원 민족별 평균 연령(1914~1931)

	1-1기	1-2기	1-3기	1-4기	1920년	1923년	1926년	1929년
日	42(1)	44(1)	48(1)	49(0)	[43~45] 42(3)	48(2)	54(0)	51(0)
鮮	44(2)	44(1)	48(0)	50(0)	[42~44] 38(2)	40(0)	39(1)	42(0)

출처: 〈부록 1, 2〉: 朝鮮總督府內務局, 1922 『改正地方制度實施概要』, 12~21면.

비고: ① 1기(1910년대)는 1-1~4기로 표기. 임명시기의 차이는 1~2년 차이므로 무시  
② 괄호 안은 미상자 수, 대괄호 안은 추정값. 1920년의 추정값은 상기 내무국 자료의 나이대(40대, 50대 등) 수합을 대조해 작성

3장에서는 민족을 기본 축으로 하면서, 평양부협의회 구성을 ① 임명기간, ① 업종, ② 구시가·신시가 기반, ③ 연령으로 분석하겠다(〈표 3~5〉, 〈부록 1~3〉, 이하 별도 미표기).

#### 1) 1910년대: 임명제와 민족별·공간별 구성의 불일치

1910년대 부협의회원은 4회에 걸쳐 임명제로 진행되었다. 평양에서는 민족별 6:6의 기계적 중립이었지만, 민족별·공간별 구성은 불일치하여 구시가 일본인, 신시가 조선인 다수가 임명되었다. 퇴임·사망 등으로 결원이 생길 때도 이 경향은 유지되었다.

우선 일본인은 ① 4회 선출 인물 중 청일·러일전쟁 이후 『평양 3대 원로』<sup>37)</sup>라 불린 미야가와(宮川), 마쓰이(松井), 우치다(內田隼雄) 중 우치다를 제외한 2명이 계속 선출되었다.

미야가와는 후쿠오카 일대의 낭인 집단인 겐요샤(玄洋社) 출신이었다. 그의 위세는 평양전기(주)(1910년 설립)의 운영 속에서 1919년 동척계 조선전기흥업(주)(이하, '전흥')이 들어오기 전까지 계속 유지되었다.<sup>38)</sup> 그는 오하시, 이나바(稻場善之助)로 이어지는 재평양일본인 신문 『平壤毎日新聞』 사장도 담당했다.

우치다는 토목청부업자였으나 1910년대 경의철도 담합사건으로 기소되었다.<sup>39)</sup>

37) 『평양 3대 원로』는 菊地謙讓, 1925 『朝鮮諸國記』, 大陸通信社, 72-75·257-258면 참조.

38) 1923.7 『宮川五郎三郎(電氣界の人々)』 『朝鮮公論』 11-7, 55면.

39) 우치다와 1910년대 경의철도 토목담합사건은 고태우, 2019 『일제하 토건업계와 식민지

그 이후 평양역 뒤편에 종묘장이 있는 백화원(百花園)을 운영했다. 오하시는 서선조림(西鮮造林)의 운영자로서, 그 종묘장도 같은 곳에 있었다.<sup>40)</sup> 마쓰이는 광업·중개업 등에 종사했으며, 조슈별 야마가타 아리토모(山形有朋)의 동서였다.

이들은 ① 대부분 상업 종사자였다. ② 6명 중 2명이 구시가 기반이었다. ③ 연령은 대개 평균 42~49세로 자연연령에 따라 증가했다. 이력상 청일·러일전쟁기 이주한 인물들이었다.

조선인은 ① 전기간 활동했던 인물이 총 4명이었다. ① 김남호(2회 임명), 임석규(1회 임명)를 제외한 대부분이 「병합」 전후 관 관련 이력이 있다. 특히 능참봉 이력자가 1회 임명자 2명, 4회 임명자 1명 눈에 띈다.

② 1920년대와 가장 다른 점은 임명자 중 반 이상이 신시가라는 점이었다. ③ 연령은 대개 44~50세 수준이었다. 일본인과 크게 다르지 않고, 자강운동의 생성기와 맞물린다. 한편, 이 중 2명은 「105인 사건」으로 기소·불기소된 인물들이었다.

조선인 부협의회원들은 복종만 했던 것은 아니었다. 1920년 8월 평남도청 폭탄 투척사건 이후 조선인 유력자들은 자위단 조직을 거절했다. 9월 조선인 「관선」 부협의회원 6명 전원은 부윤의 소집 명령에 전원 불출석했다. 도지사는 평남·평양을 조선 최고의 “배일사상” 제조지로 경계했지만, 조선인 유력자의 「보호색」으로 본심을 판별하기 어렵다고 했다.<sup>41)</sup> 특히 개신교도와 청년을 경계하는 가운데,<sup>42)</sup> 1920년 10월 부협의회는 「민선」으로 전환되었다.

## 2) 1920년 선거: 일본인 세대 갈등과 낮은 조선인 투표율

〈표 6〉 유권자 수, 투표자 수, 투표율(1920~1929)

	유권자 수		투표자 수		투표율	
	일본인	조선인	일본인	조선인	일본인	조선인
1920.11	524	558	463	343	88.4%	61.5%

개발』, 연세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5-31면 참조.

40) 백화원과 서선조림의 위치는 朝鮮總督府 陸地測量部 「平壤(縮尺 1:10000, 1915年測圖同年製版)」(國際日本文化研究センター 소장판) 참조, 서선조림의 창립은 ②, 233-234면 참조.

41) 주동빈, 2021 앞의 논문, II 장 2절 참조.

42) 朝鮮總督府, 1920.9, 앞의 책, 43-51면.

1923.11	838	1,419	693	1,100	82.7%	77.5%
1926.11	779	1,316	643	1,066	82.5%	81.0%
1929.11	1,184	1,556		2,345		85.6%

출처: <표 2>의 출처: 『協議選舉の結果』 『朝鮮新聞』 1920.11.22.: 『平壤府議 선거는, 내선인이 동수로 피선되었다』 『매일신보』 1923.11.22.: 『內地人全部當選』 『京城日報』 1926.11.21.: 『選舉後의 概觀』 『매일신보』 1929.11.23.

비고: 유권자 수는 1929년 제외 정책문서, 투표자 수와 1929년 유권자 수는 신문기사 기반

<표 7> 1920년 선거 당선자

민족별		당선자 성명	인원
조선인	조선	崔貞順(69표), 鮮于 金+筍(38표), 白潤植(32표), 李性直(25표), 韓允燦(22표), 康秉鈺(22표), 池周善(15표)	7명
일본인	조선	野路增吉(63표), 江崎萬八(62표), 金子重寬(48표), 尋木廣吉(45표), 丸山理平(41표), 一柳村五郎(39표), 中村濱吉(38표), 竹中治兵衛(36표), 福西彦太郎(31표), 在間行太(26표), 小林文二(26표)	13명
차점자		高木靜司(12표), 李永夏(李泳夏, <sup>43)</sup> 12표)	2명

출처: 『協議選舉の結果』 『朝鮮新聞』 1920.11.22

1920년 선거의 가장 큰 특징은 61.5%라는 최저의 조선인 투표율이었다(<표 6>). 총 20명 정원 중 조선인 8명, 일본인 14명이 출마하여 각각 7명, 13명이 당선되었다(<표 7>). 즉, 전국적 경향과 마찬가지로 조선인 유산자들의 냉담함이 드러났다.<sup>44)</sup>

일본인들은 ① 1명의 의사를 제외하고 12명이 광의의 상공업자였다. ② 구시가 기반 의원은 2명뿐이었다. ③ 세대 간 갈등이 나타났다. 상업회의소 내의 조선취인소 현물주식 할당문제<sup>45)</sup>가 시작이었다. 1870년대생인 구세대 공정회(內田, 丸山)와, 신세대 혁신회(原田, 小林文二, 一柳)로 나뉘었다(<부록 2>).<sup>46)</sup> 나이는 평균 43~45세로 추정된다.

43) 1920년 평양 주단포목상조합장이었고, 1924년 4월 평안고무를 창립해 1936년에 이르렀다. 『中信組合臨時總會』 『동아일보』 1920.8.7.: 『朝鮮人工業會社の 프로필』 『동아일보』 1936.1.1.

44) 姜東鎮, 1980 앞의 책, 340-343면; 孫禎睦, 1992 앞의 책, 197-202면.

45) 조선취인소 현물거래에 대해서는 홍성찬, 2001 『1920년대 『京取』 경영변동과 관련기관들의 동향』 『연세경제연구』 8(2), 429-433면 참조.

46) 府會議員 原田貞輔, 1934.10 『側面より觀た府政史』 『平壤彙報』 39, 17면.

조선인 의원은 다수가 실력양성론자였고, 1910년대 부윤 등 총독부 관리들과의 모임으로서 기성다화회(箕城茶話會)·유린회(有隣會) 등에 참여했다.<sup>47)</sup> ① 직업은 상공업자 6명, 의사 1명이었다. ② 신시가 기반은 2명이었다. ③ 나이는 42~44세로 추산할 수 있다.

이 선거에 대한 두 가지 평가가 있다. 첫째, 주조선 미국 총영사의 평가이다. 장로들이 개인적 보수주의 경향과 조선인 다수 당선 가능성 없는 상태에서 「친일파」 소리를 들을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sup>48)</sup> 둘째, 혁신회 하라타의 회고이다. 이때 조선인 중 웅변가, 신진, 투사는 없고, 장로 존중의 의미를 가진 선출만 이루어졌다는 것이다.<sup>49)</sup>

그렇다면 1919년 3·1운동 직후 평양의 신지식층은 지방의회 선거에 관심이 없었는가. 도지사 시노다는 「보호색」 여부를 염두에 두면서, 선거 1개월 전인 1920년 10월 모리야(守屋榮夫)에게 평양 주요 조선인 유력자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sup>50)</sup>

노동조직은 ① 국민협회 지부장 김성수(金性洙)의 평양노동조회, ② 최재학(崔在學)의 노동대회 지부, ③ 정세운(鄭世胤)의 노동공제회 지부가 있었다. 그는 이들의 명망이 ①은 “한국시대의 군수”의 아들이고, ②는 유럽, ③은 제일유학생 출신인 점에서 온다고 썼다.

이외에 관료 출신인 ④ 박기석(朴箕錫)과 ⑤ 박경석(朴經錫) 형제는 「보호색」을 가졌다고 썼다. 신민회 및 사립학교에 관여한 ⑥ 김희경(金羲庚), ⑦ 안석(安碩)도 「병합」 후 도 참사로서 회유·이용했는데, 차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①~⑦ 중 1920년 부협의회 선거에 출마한 인물은 없다. 그러나 정세운(의사)의 도평의회 의원 출마가 주목된다. 그는 평남 내 총 16개 부·군에서 2명씩 후보로 나선 「민선」 도평의회 선거에 출마하여 더 많은 표를 얻었다. 다만 도평의

47) 기성다화회(1917~19), 개편된 유린회(1919~22)는 오미일, 2002 앞의 책, 254-256면 참조.

48) 21번 각주 참조.

49) 府會議員 原田貞輔, 1934.10, 앞의 글, 17면.

50) 篠田治策→守屋榮夫 「金性洙ノ意見書ニ就テ(1920.10.11.)」, 守屋榮夫 문서, 소장처: 國文學研究資料館(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자료참조코드, AJP044\_01\_02C0319, 이하 출처 생략).

회 의원은 도지사가 임명했고, 평양부 몫의 「민선」 의원은 차점자인 구보(久保順吉)만 선출되었다.<sup>51)</sup>

정세윤은 재도쿄조선유학생학우회 초대 회장이었다. 그만큼 조선인 신지식층과 두루 아는 사이였다. 그는 1926년 부협의회 의원, 1927년 도평의회 의원이 되었다. 다만, 그 외에 조선인 신지식층은 대개 부협의회 출마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 3) 1923년 선거: 구시가 중심지의 조선인 약진

〈표 8〉 1923년 선거 당선자

민족별		당선자 성명	인원
조선인 (10명)	조선	李基燦(100표), 孫壽卿(82표), 鄭奎鉉(70표), 楊濟謙(69표),	4명
	재선 이상	黃錫煥(73표), 鮮于 金+筍(67표), 韓允燦, 白潤植, 康秉鈺, 李春燮(66표)	6명
일본인 (10명)	조선	瀧本 理(92표), 奧田英一郎(79표), 辰己彦三郎(69표), 松尾六郎(52표), 藤井定太郎(51표)	5명
	재선 이상	內田錄雄(80표), 丸山理平(75표), 小林文二(69표), 一柳村五郎(57표), 中村濱吉(48표)	5명
차점자		金冕周(48표)	

출처: 「平壤府議 선거는, 내선인이 동수로 피선되었다」 『매일신보』 1923.11.22.

워싱턴회의의 종결(1921.11~1922.2)은 조선인들에게 외교독립론의 좌절로 여겨졌다.<sup>52)</sup> 도지사에 따르면, 평남·평양의 강한 「반일감정」이 이때 수그러들어 “관헌의 시설”을 신뢰하고 「재외(조)선인」의 활동이 아닌 교육·산업 등의 문제를 논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sup>53)</sup>

1923년 선거는 지식인과 활동가의 관심을 모두 받았다.<sup>54)</sup> 조선인 투표자 수는

51) 「各地選舉界」 『조선일보』 1920.12.19.(석간); 「各道評議彙報(四)」 『조선일보』 1921.1.14.(석간); 「平安南道告示第95號(1920.11.4.)」 『朝鮮總督府官報』 第2474號, 1920.11.4.

52) 나가타 아키히미(박환무 옮김), 2008 『일본의 조선통치와 국제관계』, 일조각, 327-343면.

53) 篠田治作→齋藤實 「平安南道民心ノ傾向ニツキ報告(1923.1.22.)」(1990 『齋藤實文書』 4, 고려서림, 548-559면).

54) Ransford S. Miller(American Consulate General)→The Secretary of State, Washington, “Elections of Municipal and Village Councillors(1923.11.22, Seoul, Choson, No. 146)”, RG59, M426, Roll 3-2.

약 3배 증가했고, 투표율은 62%에서 78%로 증가했다(〈표 6〉). 60%에서 65%가 된 경성부<sup>55)</sup>보다 훨씬 급격한 변화였다. 조선인과 일본인은 처음으로 동수를 이루었다(10:10). 일본인 최소 득표자와 조선인 차점자의 득표가 같았으니, 이때 이미 조선인 과반수도 가능했을 수 있다.

일본인의 초선과 재선 이상 비율은 5:5로 「관선」 의원 출신이 없는 가운데, 공정회계와 혁신회계가 확인가능한 바로는 2명씩 당선되었다. ① 변호사, 조립업 1명씩을 제외하면 모두 광의의 상공업자였다. ② 기반은 모두 신시가였다. ③ 연령은 48세(2명 미상)로 이전 선거(43~45세 추정)보다 약간 증가했다.

한편 조선인은 재선자가 6명이었다. 그 중 2명은 「관선」 의원이었다. 1910년대와 단절된 경성부협의회와<sup>56)</sup>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③ 나이는 평균 40세로 이전 선거보다 2~4세 감소했다. ① 직업구성은 상공업 6명, 의사 2명, 변호사 1명, 전 인민총대 1명이었다.

② 구시가 기반 당선자는 10명 중 8명이었다. 모두 『동아일보』 평양지국 주도의 「공인후보」,<sup>57)</sup> 즉 일종의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선출되었다. 지국은 「공인후보」 선출의 정당성을 강조했고, 그 외 후보는 “개인”적, 혹은 “사사로이” 출마했다고 썼다.<sup>58)</sup>

선출대회는 구성원을 볼 때, 1922년 결성되어 『동아일보』 지국 내 임시사무를 둔 동우구락부<sup>59)</sup>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거 약 1달 전 3백여 명의 유권자들은 임시의장으로 정세윤, 임시서기로 양제겸을 선출했고, 이덕환·김희경·강유문이 연설했다. 이후 이덕환·김동원·박경석 등 10명 공천위원을 선정해

55) 엽복규 외, 2017 앞의 책, 193-194면.

56) 엽복규 외, 2017 위의 책 중 최인영, 전영욱의 글 참조.

57) 「공인후보」 선출은 전조선적 현상이었다. 김운정, 2016 앞의 논문, 서론 및 219-222면.

58) 아래 1923년 선거 내용은 별도 표기가 없는 한 「당파적 遺弊를 타파하고 이상적 선거를 단행」 『매일신보』 1923.10.28.; 「平壤府協議員選舉에 對하여」 『동아일보』 1923.10.30.; 「平壤府協議候補者」 『동아일보』 1923.11.14.; 「점차 백열화 하는 평양부의 추록전」 『매일신보』 1923.11.14.; 「平壤府議 선거는, 내선인이 동수로 피선되었다」 『매일신보』 1923.11.22. 참조.

59) 동우구락부→수양동우회→동우회의 창설·변동에 대해서는 金相泰, 1992 「1920~1930년대 同友會·興業俱樂部 研究」 『韓國史論』 28; 河かおる, 1998 「植民地期朝鮮における同友會」 『朝鮮史研究會論文集』 36; 조배원, 2000 「수양동우회 연구」 『도산사상연구』 6 참조.



30명을 뽑았으며, 무기명 투표 후 연립후보자 13명을 선출했다. 다만 「관선」 출신 김능원이 불출마를 선언해 12명이 되었다.

한편 외성(外城) 조선인들의 「공인후보」로 황석환, 「개인」으로서 「관선」 출신 김진근과 대동동지회 선우순 등이 출마했다. 송인섭과 최순정은 선거 3일 전 돌연 출마를 선언했다.

연립후보자(구시가): **강병옥** **이기찬** 옥동규 **백윤식** **한윤찬** **손수경** **양제겸** 김희경 **이춘섭** 차주원 이은용 **정규현**(12명 중 8명 당선)

기타: **선우순** 홍재기 김면주 이영하 김진근 **황석환** 송인섭 최순정(8명 중 2명 당선)

『동아일보』 지국의 「공인후보」 외 당선자 2명은 평양 외성 문중 조직 출신이었다. 이 중 선우순은 『동아일보』의 당선사례에 함께 하지 않았다.<sup>60)</sup> 덧붙여 최순정 등의 조선총독부 경찰 출신도 「공인후보」에서 배제되고 있다.

요컨대 1923년 최대 규모의 조선인 「공인후보」 선출은 구시가가 구심점이 되었다. 한편 1924년 도평의회 의원도 「관선」 8명 중 5명이 평양 거주자였다. 평양부 몫(강병옥), 대동군 몫(이동열)의 「민선」 의원은 구시가 인물이 선출되었다.

#### 4) 1926년 선거: 평양전기(주) 부영화와 조선인의 수적 압도

〈표 9〉 1926년 선거 당선자

민족별		당선자 성명	인원
조선인 (19명)	조선	金能秀(88표), 邊麟奇(67표), 吳崇殷(61표), 崔蒙煥(55표), 李東悅(55표), 楊基鶴(50표), 鄭世胤(36표), 玉東奎(33표), 林泰華(33표)	9명
	재선 이상	鮮于 金+筍(75표), 李春燮(64표), 韓允燦(58표), 白潤植, 鄭奎鉉(56표), 孫壽卿(53표), 李基燦(48표), 鄭寅河(47표), 康秉鈺(46표), 梁濟謙(41표)	10명
일본인 (11명)	조선	中平岩藏(105표), 村上忠五郎(56표), 石隈信乃雄(44표), 德永 金(33표), 佐久間萬吉(29표)	5명
	재선 이상	丸山理平(72표), 小林文二(68표), 中村濱吉(64표), 辰己彦三郎(64표), 松尾六郎(58표), 內田錄雄(53표)	6명
차점자		崔永福(23표)	

출처: 「內地人全部當選」 『京城日報』 1926.11.21.

60) 「당선사례」 『동아일보』 1923.11.23.

1926년 선거는 조선인(19명)이 일본인(11명)을 수적으로 압도했다. 반면 『경성일보』는 「내지인 전부 당선」이란 제목을 붙였다. 식민지 조선 부협회의의 첫 조선인 의원 과반수 당선을 무시한 보도였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일본인 후보가 11명밖에 출마하지 않은 것이기도 했다. 차점자 최영복 외에 1표씩 받은 8명이 있었다고 하니,<sup>61)</sup> 조선인과 일본인이 각각 28명, 11명이 출마했다. 조선인 투표율은 3년 전보다 오른 81.0%였다.

주요 쟁점은 평양전기(株) 부영화였다. 특히 조선인 다수 업종인 정미업자·고무공장주는 전기부영을 통해 동력요금 인하 요구를 할 수 있었다.<sup>62)</sup> 다만, 전선은 민족 간 대립보다 복잡했다. 상업회의소 내에서는 우치다-이춘섭-『平壤毎日新聞』으로 연결되며 평양전기(株)를 옹호한다는 이유로 명명된 「전벌파(電閥派)」, 마쓰이-박경석-『西鮮日日新聞』으로 연결되는 「비전벌파(非電閥派)」 사이의 대립이 있었다.<sup>63)</sup> 후자 중 일본인은 마쓰이와 그를 움직인 혁신회 계열으로 구성되었다.<sup>64)</sup>

그렇다면 일본인들의 구성은 어땠는가. ① 조립업(1명)을 제외하면 모두 광의의 상공업자였다. 이 중 3명의 토목청부업자, 한미전기회사 출신의 전기·광산업 전문가 이시쿠마(石隈)가 있었다. 조선인 의원 중 기술자 출신이 나오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주목된다. ② 전부 신시가 출신에 ③ 평균 연령은 54세로 3년 전 선거보다 7세 상승했다.

반면 조선인은 ① 의사 4명, 변호사 3명으로 전문직이 무려 7명(37%)이었다. 전 관료(현 남금용조합 평의원) 1명, 농업 1명 이외에 10명의 상공업자가 있었다. ② 신시가 기반은 19명 중 4명이었고, 임태화를 제외하고 모두 참봉 혹은 「향안」 재록 가문 출신이었다. ③ 연령대는 평균 39세(1명 미상)으로, 3년이 지났지만 지난 선거와 비슷했다.

또한 18명이란 최대 규모의 조선인 「공인후보」 선정이 이루어졌다. 역시 수양

61) 「平壤府」 『朝鮮新聞』 1926.11.22.

62) 주동빈, 2020 앞의 논문 참조.

63) 이다숨, 2017 「1926년 평양전기주식회사 전기요금 인하운동」, 성균관대 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34-40면.

64) 「平壤にも電氣問題」 『京城日報』 1926.2.13.

동우회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동아일보』 평양지국이 주도했는데<sup>65)</sup> 1924~37년 지국장인 김성업(金性業, 1886~1965)이었고, 그가 잠시 물러났을 때(1927.12~1928.6)에도 주요한이 담당했기 때문이다.<sup>66)</sup> 선정도 김동원, 한근조를 포함한 전형위원 8명이 맡았다. 한근조는 1927년 신간회 평양지회 부회장이었고 1929년 부협의회 선거에 출마했다.<sup>67)</sup>

쟁점은 구시가에 더해, 일본인 의원 대다수가 「전벌과」로 될 가능성에 대한 경계였다.<sup>68)</sup> 예컨대 조선인 「전벌과」 이춘섭은 1923년 「공인후보」였으나 1926년에는 독자출마했다.

공인후보: 이기찬 정세윤 변인기 오승은 손수경 양제겸 정규현 김능수 옥동규  
朴經錫 蔡洙玆 백윤식 朴治鍾 李載純 方潤 黃達永 金亨淑 강병욱(18명 중 11명 당선)

단, 「공인후보」가 조선인의 입장을 모두 반영하는 것은 아니었다. 낙선자는 대개 구시가 출신이지만 '거물급' 관료 출신들이 많았다. 예컨대 전 상업회의소 부회두(박경석), 전 군수(채수현)가 불과 1표씩만 득표했다. 조선인 중심 업종(정미소·곡물상[이재순, 황달영], 양말제조업[방운], 의사[박치중], 변호사[김형숙])<sup>69)</sup>도 1표 득표에 그쳤다. 그나마 산정현교회(장로회) 부설 정의유치원장 최영복<sup>70)</sup>이 8표를 받았다(<표 9>).

65) 『조선일보』 지국은 『동아일보』 지국이 「공인후보」 선출을 주도했다는 한 시민대회의 비판을 그대로 게재했다. 반면 『동아일보』는 이 의견을 소개하며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았다. 平壤 一記者 「平壤漫筆」 『조선일보』 1926.11.7.; 「平壤市民=大會準備會開催」 『조선일보』 1926.11.13.; 「府協議員候補 市民大會否認」 『동아일보』 1926.11.15.; 「不正候補問題로 平壤市民의大會」 『조선일보』 1926.11.15.

66) 平壤 金性業 「支局長任을 辭함에 對하여」 『동아일보』 1927.12.10.; 「本社辭令(四日附)」 『동아일보』 1928.6.6.; 「獨立闘士金性業翁」 『동아일보』 1965.1.20.; 東亞日報社 編, 1975 『東亞日報社史 卷1: 1920-1945』, 東亞日報社, 173-175면 참조.

67) 「公認候補選定 平壤府協議會」 『동아일보』 1926.11.7.

68) 「多數出馬는 朝鮮人에 不利 平壤府協議候補」 『동아일보』 1926.10.17.

69) 이들의 이력은 ⑦: 「仁政下の 稗郡守」 『매일신보』 1913.4.26.; 「辯護士又申請」 『동아일보』 1920.9.23.; 踏査員 金起田 車相瓚, 1924.9 「朝鮮文化基本調査(其八): 平南道號」 『개벽』 51, 67-75면; 「地方人事」 『조선일보』 1932.12.11. 참조. 참고로 조선인 낙선자는 9명이므로 상기 인물들을 제외한 1명은 미상이다.

「공인후보」와 무관한 당선자는 총 8명이었다. 공통분모는 신시가(선우순·최몽환·임태화·양기학·[이동열]), 구세대의 아들(정인하), 구시가 '전별파'(이춘섭, 한운찬)<sup>71)</sup> 등이었다. 신시가 5명은 면옥업(임태화), 구시가 대금업자와 신시가 고무공장주 병행(이동열) 외에는 『향안』 재록의 성관 혹은 참봉 출신이었다.

한편 1927년 「민선」 도평의회 의원은 정세운 1명이 임명되었다(〈부록 3〉). 또한 「관선」 박경석이 사퇴하자(1929.1.10.) 1926년 부협의회 선거의 「공인후보」 선정에도 참여한 동우회 김동원을 임명했다(1.29). 그러나 그가 보름만에 사퇴하여 김능원으로 대체되었다(2.12).<sup>72)</sup> 구시가 상공업자 기반의 평양 지역유력자의 스펙트럼은 결코 좁지 않았던 것이다.

요컨대 1926년 선거는 같은 조선인이더라도, 구시가 및 전기부영 찬성으로 인해 「공인후보」로 당선되는 이와, 비「공인후보」와 그 중 다수인 신시가 조선인들이 가진 명망의 기반은 다른 것이었던 점을 보여준다. 구역별 조선인 입장의 차이점이 드러난다.

#### 5) 1929년 선거: 부역 확장, 대기업 개입, 조선인 전문직 대두

〈표 10〉 1929년 선거 당선자

민족별		당선자 성명	인원
조선인 (17명)	조선	崔鼎默(100표), 宋永祥(99표), 韓根祖(90표), 李裁純(83표), 崔成九(77표), 金鳳淳(56표), 李東初(48표), 韓錫鱗(42표)	8명
	재선 이상	吳崇殷(76표), 李基燦(75표), 金能秀(74표), 鄭奎鉉(55표), 孫壽卿(53표), 鄭寅河(52표), 林泰華(44표), 邊麟奇(40표), 鄭世胤(40표)	9명

70) 정의유치원은 산정현교회 유치원을 인계한 것으로, 김동원이 초대 원장이었다. 양전백·함태영·김영훈, 1968 『朝鮮예수敎長老會史記 下』, 연세대학교출판부, 139·369~370면.

71) 1927년 초 평양전기(주) 부영 당시 102명 주주 중 1926년 조선인 부협의회 후보자는 이춘섭과 한운찬 2명뿐이었다. 平壤電氣株式會社, 1927 『(昭和二年三月一日現在)財産目録, 貸借對照表』, 10-14면.

72) 「平安南道告示第2號(1929.1.10.)」, 『朝鮮總督府官報』 第620號, 1929.1.28.; 「平安南道告示第7號(1929.1.29.)」, 『朝鮮總督府官報』 第628號, 1929.2.6.; 「平安南道告示第9號(1929.2.12.)」, 『朝鮮總督府官報』 第641號, 1929.2.12. 1930년 『척무평론』 기사는 도 내무과장(藤原喜藏)의 양대 실책을 상업회의소 조정 문제와 김동원의 도평의회 의원 사퇴 문제로 들고 있다(㉠-㉡, 12).

일본인 (13명)	조선	稻葉善之助(149표), 平井喜則(134표), 小林彌平(123표), 中山電三(57표), 山下友次郎(37표)	6명
	재선 이상	瀧本 理(113표), 原田貞輔(101표), 松尾六郎(64표), 丸山理平(59표), 内田録雄(57표), 辰己彦三郎(56표), 佐久間萬吉(51표), 江崎萬八(49표)	7명
차점자		近藤棟四郎, 玉東奎, 金冕周(35표), 藤井干城(33표), 崔永福(30표)	5명

출처: 『各地に於ける府面協議選舉, その結果』 『朝鮮新聞』 1929.11.21.

1929년 선거는 1장에서 보았듯 그 해 4월의 부역 확장 이후 진행되었다. 인구 수는 조선인이 늘었지만, 민족별 유권자 수 차이는 도리어 좁혀졌다(<표 2>). 그러나 전체 투표율은 85.6%에 달했고, 출마자는 15 대 20<sup>73)</sup>, 당선자가 13 대 17로 조선인이 더 많았다.

일본인 의원은 신편입 구역의 양대 대기업<sup>74)</sup>과 재평양 일본인 원로들의 영향력 아래 선출되었다. 예컨대 최다 득표자 조선 이나바(稻葉, 의사)는 겐요샤 출신이었고, 1935년 『平壤毎日新聞』 사장이 되었다. 그 뒤를 이은 인물은 히라이(平井) 대일본제당 영업부장이었다.

또한 1923년 대수해로 선교리로 옮겨간<sup>75)</sup> 혁신회계 주조업자(鑄造業者) 하라타(原田)가 6년만에 당선되었다. ① 대기업(제당) 1, 의사 1, 변호사 1, 조립업 1을 제외하면 대개 광의의 상공업에 속했다. ② 새로 편입된 동평양 일대의 선교리에서 히라이와 하라타가 당선된 것을 제외하면, 모두 신시가 기반이었다. ③ 연령은 51세로 소폭 올라갔다.

한편 조선인 의원은 ① 전체 당선자의 무려 59%(10명)가 의사(4명)·변호사(6명)였다. 의사 숫자는 그대로였고, 중추원 참의 강병옥의 사망(1928) 이후 최성구만이 새로 당선되었다. 변호사는 6명으로 증가했다. 신진으로서 신간회 평양지회 부회장이었던 한근조(34세)와 『조선일보』 평양지국장(31)을 맡게 되는 최정묵(29세)이 주목된다.

그 외에는 상공업자가 7명이었다. 신간회 평양지회 간부 송석찬과 함께 서경

73) 『選舉期日臨迫, 各地戰勢猛烈』 『매일신보』 1929.11.17.

74) 선교리와 양대 대기업에 대해서는 주동빈, 2021 앞의 논문 참조.

75) 原田貞輔, 1934 앞의 글, 17면.

상공(주)를 운영하고 있던 이재순, 산정현교회 집사 김봉순, 평양기독교청년회 활동에 참여하였던 한석린 등이 당선되었다. 최성구를 비롯하여 개신교인들의 대두가 특히 눈에 띈다.

③ 나이는 평균 42세였다. 17명이란 표본집단을 생각하면 젊다. 개신교 청년회 및 젊은 변호사들이 개입한 결과였다. ④ 총 17명 중 15명이 구시가 기반이었다. 임태화(면옥), 송영상(변호사) 2명의 신시가 당선자를 포함해서 모두 특정 업종을 대변하거나 전문직으로 전환되었다. 한편 1930년 도평의회 의원은 오승은이 「민선」으로 당선되었고, 상업회의소 회두 출신 인물 5명이 「관선」으로 선출되었다.

1929년 선거 직전 『동아일보』 지국은 부협의회가 진정한 「자치」가 아니라면서도, “민중의 복리”를 위하여 “인물 본위”로 투표하라고 독려했다.<sup>76)</sup> 임기는 약 1년 반에 그쳤지만, 부협의회는 1) 평양상업회의소의 민족차별적 평의원 수 책정 조정과 조선인 회두(박경석) 선출 개입<sup>77)</sup>, 2) 「서평양시가계획」에서 부운의 자문 없는 토지매수 비판<sup>78)</sup>과 구시가 이익 대변, 3) 사회문제로서 전등 문제 인식과 요금 인하 주장 등에 개입했다.<sup>79)</sup>

반면 1930년 2월 1,500~2,500명이 모인 「부협의회비판부민대회」가 열렸다. 이 임하는 마쓰이 부운에 전기 부영 등 업적 치하를 이유로 1930년 부 예산 중 1만 엔을 지급했다며, 일본 총리대신과 척무대신에 부협의회 의원 총사직을 진정했다. 군중이 참여하여 총사직을 요구할 만큼 부 재정은 주목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다만, 연설자·사회자 6명 중 2명은 부협의회 출마 경험자로 ‘제도 바깥’에 있는 인물들이 아니었던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sup>80)</sup>

76) 平壤 一記者, 『平壤時話』 『동아일보』 1929.10.23.

77) 강명숙, 2000 앞의 논문, 184-205면.

78) 「牡丹峯茶話」 『조선일보』 1928.12.2.

79) 「主要都市巡廻座談 (6) 第一 平壤篇」〈一〉~〈六〉 『동아일보』 1930.9.19.~24. 참조.

80) 사회자는 車周遠, 연설자는 康愈文, 尹住逸, 黃柱旭, 木村省三, 藤井干城이었다. 「府民大會開催코 平壤府議糾彈」 『동아일보』 1930.2.22.; 「一萬圓の慰勞金贈呈の決議は不當」 『朝鮮新聞』 1930.2.25.; 「府議會批判 府民大會開催」 『조선일보』 1930.2.25.; 「府尹謝金問題로 各團聯合會組織」 『조선일보』 1930.3.16.

요컨대 선거를 거치면서 일본인 의원은 노령화되는 반면, 조선인은 시간의 흐름에도 평균 연령이 감소하거나 유지되었다. 또한 조선인 중심 업종을 중심으로 상공업자가 구시가, 전기사업 운영을 매개로 점차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민족별·구역별 구성은 1910년대와 달리 일치하게 되기 시작했다. 단, 1930년 「부제」 개정으로 4년에 1번 선거로 전환되었고, 1929년 선출 의원의 임기는 약 1년 반에 불과했다.

#### 4. 지역사회: 「토성(土姓)」 잔존과 업종·구역이란 새로운 구심점

##### 1) 업종의 민족별 구심점과 조선인 전문직 약진

그렇다면 1920년대 평양 상공업계의 특성은 무엇이었나.<sup>81)</sup> 첫째, 1930년 「까만 연탄 하얀 설탕」이란 평양 선전의 노래가 상징하듯(㉠), 대기업은 부역 확장으로 편입된 선교리의 동척계 전흥, 대일본제당(주) 밖에 없었다.<sup>82)</sup> 총독부도 평양의 회사는 ㉠ 이들 대공장, ㉡ 광업, ㉢ 지역 특산품(소상공업)으로 분류된다고 했다.<sup>83)</sup> 즉, 행정 당국자, 금융기관 지점장을 제외하면, 지역유력자들은 채취업이나 소상공업에 종사했다.

둘째, 민족별 업종차는 어땠는가. 일본인은 청부업·중개업에 주로 종사했다. 「토목건축청부」는 1930년 평양상업회의소 회원 중 53:1의 민족비를 보였다. 이들은 1930년 1월 미야가와와 최측근이던 요코타, 「민선」 부협의회 4선의 마루야마가 관여한 국수회 평양지부와 합동으로 평양상업회의소 기능 옹호 성명을 했다.<sup>84)</sup> 또한 중개업은 오하시, 마쓰이, 후쿠시마(福島莊平) 등의 상업회의소 회두

81) 1919년 이후 평양상업회의소의 업종별 대분류는 전성현, 2012 앞의 책, 79-87면 참조.

82) 이 내막에 대해서는 주동빈, 2021 앞의 논문 참조.

83) 朝鮮總督府, 1932 『平壤府(調査資料第34輯: 生活狀態調査(其四))』, 292~295면. ㉠에 포함된 조선병기제조소, 해군연료창, 평양광업부, 전매국 연초공장, 오노다시멘트 등은 평양과 관련된 부외 회사도 포함한 것이다.

가 주로 맡았고, 본국 자본과의 연락 역할을 했다(⑩⑪).

이 업종들은 「병합」 전 「평양 3대 원로」들의 기반이었다. 미야가와는 평양전 기(株) 우치다는 규슈(九州)라는 지연(①, 23~24), 마쓰이는 야마가타 아리토모와의 혼맥을 매개로 지역사회를 규합했다. 단, 미야가와는 전기부영화 이후 낙향했고(〈부록 2〉), 나머지 둘은 1930년 인물평에서는 「예비역」, 「후비역」이라 지칭되었다. 그럼에도 구 혁신회 계열의 세는 전기부영화 후에도 미미했다(⑩). 즉, 일본인의 세대갈등은 세대교체로 귀결되지 않았다.

반면 1929년 조선인은 양말·고무·정미공업에서 수적 우세를 차지했다. 변호사업의 조선인 독점, 의사사업의 대폭 우세도 나타났다.<sup>85)</sup> 그 중 고무공업·정미업은 부영전기와 산업연관성을 가졌고, 부(협의)회에 대한 조선인 자산가의 개입 이유가 되었다.<sup>86)</sup> 이 업종별 편차가 평양상업회의소의 민족별 분기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선인 상공업의 독자성을 강조하며 1928년 12월 등장한 평양상공협회 창립으로 귀결되었다.<sup>87)</sup>

셋째, 이에 따라서 1920년대 평양부협의회에서는 특히 조선인 전문직들이 대두했다. 1926년 변호사·의사가 전체 조선인 당선자 19명 중 7명, 1929년 17명 중 10명에 이르렀다. 같은 시기 민족을 불문하고 경성은 1명, 2명, 부산은 1명, 2명이었다.<sup>88)</sup>

왜 그랬을까? 식민지기 사법·의학에 대한 자격증은 행동·언변에 정당성·합리성을 부여했다. 피식민자 상공업자들이 이들을 선출한 이유였다. 지방의회 의원에게는 일본어 문해력과 자문안 검토능력이 필요했다. 회의는 일본어로 진행되었고, 경남도평의회의 경우 1925년까지 조선어 통역이 병행되었다. 그리고 1929년까지 세입출 예산안 자문안이 당일 배포되었다. 충분한 연구시간이 부족했던 것이다.<sup>89)</sup>

84) 「平壤商議の機能を擁護」 『京城日報』 1930.1.27.

85) 「商工業의 實權은 完全히 朝鮮人이 掌握」 『조선일보』 1929.1.2.

86) 주동빈, 2020 앞의 논문, 238-248면.

87) 오미일, 2002 앞의 책, 316-322면.

88) 홍순권, 2010 앞의 책, 3부 1장; 염복규 외, 2017 앞의 책 중 전영욱의 글 참조.

89) 전성현, 2014 「일제시기 도평의회와 지역」 『韓日民族問題研究』 27, 66-76면.



평양부협의회 의 경우, 1922년 부운의 발음 부정확으로 인한 예산회의 실비진료소 설치안 부결 해프닝을 고려할 때<sup>90)</sup> 조선어 통역은 없었다고 보인다. 또한 1926년 예산안을 미리 배포한 부협의회 내시회(內示會)가 확인된다.<sup>91)</sup> 지역별·단위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지방의회 그 이상으로 일본어 독해와 자문안 검토능력이 강조되었던 것이다.

전문직은 일본어 전문용어에 능통해야 했다. 변호사는 법령 및 보상액 등의, 의사는 위생정책의 적부를 따질 수 있었다. 1929년 제131회 부협의회에서 전흥과 평양부의 전기요금 계약조건의 법률적 합의를 부운에게 캐묻고 비밀회의에 들어가게 한 것은 오승은이었다.<sup>92)</sup> 의사 정세윤은 1931년 위생정책 등을 잘 알고 의원으로서 역량이 만점이라 평가받았다.<sup>93)</sup>

그들 자신은 자산가이기도 했기에, '무기'를 두 개 켜 샀었다.<sup>94)</sup> 예컨대 의사 정세윤은 대한제국기 잠업 전공이었다. 조선노동공제회 지부장, 조선물산장려회 발기인(이상 1920년), 조선염직(합명)의 운영(1924~42), 조지 맥쿤과 함께 홀동광산 운영(1933~35) 등을 했다. 최성구도 구시가 방면의 북금용조합 평의원으로 참여한 바 있었다(<부록 2>).

다만, 성향차는 있었다. ㉑번 작성자는 한근조·최정묵·오승은 의원은 모두 변호사를 「기예(表藝)」로 할 뿐, 언변은 능하나 사상 문제가 있어 자중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근조·최정묵이 1930년 제4차 조선공산당 사건 변호를 맡았던 것 등 민족해방운동과 무관하지 않았던 것을<sup>95)</sup> 지칭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식민권력이 주도한 근대적 행정기구에 용이하게 '적응'할 수 있는 자산, 지식체계, 일본어 능력을 갖춘 인물이 진출한 점은 변함이 없었다.

90) 당시 미야다테(宮館貞一) 부운은 영어는 잘하지만 일본어 발음이 이상했다고 한다. 그래서 조선인을 위한 실비진료소 설치안 표결을 할 때, 조선인 의원 중 일본어를 가장 잘한다는 지주선이 “본안에 반대하는 분은 기립”하라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 분”으로 잘못 알아들어 부결되는 해프닝이 있었다. 原田貞輔, 1934 앞의 글, 17-19면.

91) 『平壤府豫算內示』 『京城日報』 1925.12.19.

92) 주동빈, 2020 앞의 논문, 247-248면.

93) 藤村德一 編, 1931 『全鮮府邑會議員銘鑑』, 朝鮮經世新聞社, 257면.

94) 평양 변호사·의사들의 자산가적 성격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고를 기한다.

95) 『新義州共産公判來十八日로 延期』 『조선일보』 1930.2.8.

요컨대 1920년대 평양부협회의의 업종 구성을 보면 첫째, 부영전기가 있어 조선인 공장주가 부협회의에 가입할 이유가 컸다. 둘째, 특히 조선인 전문직의 수가 1926, 29년 선거에서 조선인 의원의 3분의 1, 2분의 1 이상에 육박했다. 이 과정에서 1920년대 부협회의 구성은 민족별·구역별 구성이 일치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었다.

## 2) 조선인 지역유력자의 '혈연-공간적' 변동

그런데 1920년대 평양부협회의에서 구시가 조선인이 대두한 맥락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경성과 달리, 평양은 전통유력자가 신시가의 일부인 '외성'에 세거했기 때문이다.

“한국시대에 군수로서 “사또(使道)”, “성주(城主)”, “목민지관(牧民之官)”, “민지부모(民之父母)”라는 구식관료의 사상이 뇌리에 박힌 16세기의 인물은 현대에는 어디에든지 무소용(無所用)이요, 조선에서 제2도회인 평양에는 더욱 부적당할 것이다 (강조는 필자).”<sup>96)</sup>

첫째, 신시가 조선인의 구심점은 기존 문중 조직이었다. 1920년 조직된 평남유림(연합)회는 지역 『명문가』와 대한제국기 관료 출신의 결집체였다.<sup>97)</sup> 식민권력은 이들을 지배 파트너로서 더 선호했다. 반면 『동아일보』 지국은 위와 같이 조선인 『구세대』를 비판했다.

평남유림회는 1920년 도 당국의 허가를 받아 평남 각 군의 유림계의 연락통일을 위해 조직되었다. 도 당국은 조선에서 이미 유교의 세력은 줄어들었지만, 지역 지배를 위해 유림회 조직을 칭찬하고 편의를 봐주어 평양 문묘 구내에 본부를 두었다고 했다.<sup>98)</sup>

96) 平壤支局 一記者, 『平壤時話』 『동아일보』 1923.3.30. 현대어로 다소 고쳤다.

97) 주요 간부는 전덕룡·황석룡·황석환·김능원·최재학·선우순·옥동규·송영상·이동초·강병옥 등이었다. 『平壤大同儒林會, 平壤大同 聯合으로』 『매일신보』 1922.3.5.; 『평양유림 역원 개선』 『매일신보』 1924.3.14.; 『平壤儒林會의 憤慨』 『조선일보』 1924.2.4.; 『平南儒林總會 任員全部改選』 『매일신보』 1930.12.20.

98) 平安南道, 1924 『平南概況(大正十三年調)』(B271, 면수 없음).

그 중 평양 『명문가』들은 a) 전통시대부터 평양 외성에 세거하면서 이 지역을 구심점으로 했다. 또한 b) 대한제국 전후 교육 중심의 자강운동과 능참봉직 역임을 통한 단군·기자 계승 의식을 강화했다. c) 친일단체 대동동지회와 인적으로 연결되었다.

a) 1933년 평양에서는 소위 『향안』이 출간되었다. 1914년 『외성명가(外城名家)』 5명(제안황씨 2명, 태원선우씨, 창녕조씨, 전주이씨 각 1명)의 주도하에 작성되기 시작, 출간된 것이다(⑬). 본래 양계지방은 엄밀한 의미에서 토성이 없었지만<sup>99)</sup>, 앞서 언급한 4개 성관은 대개 18세기 평양에 있었다.<sup>100)</sup> 그들은 세거되었던 외성을 명망의 매개로 했다.<sup>101)</sup>

『병합』 전 신시가는 반일운동·자강운동의 구심점이 되기도 했다. 신시가가 외성 일부와 중성 일부로 구성되었고, 러일전쟁기 일본 육군용지·철도용지 수용 대상지였기 때문이다.<sup>102)</sup> 전덕룡·황석환 등이 외성 인민총대로서 군용지 수용반대운동에 나섰다.<sup>103)</sup> 그들은 남원전씨와 제안황씨로 『향안』에 재록된 성관이었다(⑬⑭). 1924년에도 조선총독부가 1919년 일본 육군이 넘겼던 군용지를 판다고 하자 황석환이 반환운동의 대표가 되었다.<sup>104)</sup>

b) 1920년대 무엇이 이들의 명망을 유지시켰는가. 각 군의 향교재산 환수운동<sup>105)</sup>, 학교평의회 출마<sup>106)</sup> 등 교육 쟁점이 있었다. 주목할 점은 서북지역 유력자로서 '단군·기자 계승의식'과 족보를 매개로 한 부계 중심 가족주의에 기반을 둔 혈족적 자기인식을 강화한 점이다.<sup>107)</sup> 특히 태원선우씨는 기자 후손을 자임

99) 이수건, 2003 『한국의 성씨와 족보』, 서울대학교출판부, 179-186·292-332면 참조.

100) 여지도서에는 4개 성씨 중 전주이씨만 누락되어 있다. 『輿地圖書 上』, 平安道, 平壤, 姓氏(◎).

101) 김선주, 2015 앞의 논문, 88-89면.

102) 박준형, 2015b 앞의 논문, 127-139면.

103) 윤경로, 2012 『(개정증보판)105인사건과 신민회 연구』, 한성대학교출판부, 65-68면.

104)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Ref.C03011125200, 平壤軍用地の内朝鮮總督府へ引渡に關する件(防衛省防衛研究所)』: 『強奪使用하든 軍用地返還運動』 『시대일보』 1924.5.28.

105) 김정인, 2006 『일제강점기 郷校의 변동 추이』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7, 96-99면.

106) 지면상 부협의회 의원 중 학교평의회 의원 출신과 수합 근거는 <부록 2> 참조.

107) 앙드레 슈미트(정여울 옮김), 2007 『제국 그 사이의 한국 1895~1919』, 휴머니스트, 419-434면 참조.

했는데,<sup>108)</sup> 이들이 세거하던 외성은 기자궁·기자정(箕子井)과 같은 역사적 상징물이 있는 공간이었다.<sup>109)</sup>

『병합』 전후 제안황씨와 태원선우씨는 능참봉의 근속이 가능했다. 평안남도 당국은 승령전(단군·동명왕), 승인전(기자), 동명왕릉, 기자릉의 4개 능참봉을 임명했다. 1912년 정무총감의 도장관 통첩에 따르면, 이들 참봉은 1) 각 전릉 향사자(享祀者)의 ‘후예’여야 하고(없으면 다른 성으로 전환), 2) 채용 및 해직사령은 총독부에 따르고 월급은 10엔이었다.<sup>110)</sup>

다만, 1923년 1월 1일 부로 능참봉은 세습직에서 임명직, 임기직이 되었다. 후보자는 평남유림연합회에서 3배 추천하기로 했다.<sup>111)</sup> 참봉 황석룡(기자릉), 선우협(승인전), 김종만(승령전)은 영구근속이나 임기 증대를 탄원했지만<sup>112)</sup>, 세습직이란 특권은 사라지게 되었다.

c) 지연(신시가)·혈연은 친일단체 대동동지회의 구심점이기도 했다. 기존 연구의 관련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대동동지회의 회관과 발행소, 잡지사는 신시가인 옥정 3번지에 있었다. 이들은 평양 바깥에서는 별다른 영향력이 없었다. 그리고 조직에 관여한 도지사는 선우순이 기자 후손 자칭의 명문가임을 감안하고 회장에 임명했다.<sup>113)</sup>

즉, 대동동지회를 가족-학교쌍에서 학교(실력양성론)만 보면 그 성격을 보기 어렵다. 회장 선우순(태원선우씨), 선전부장 나일봉(나주나씨), 문예부장 황석룡(제안황씨)은 모두 『향안』에 재록된 성관이었다(㉓㉔). 나일봉은 유림이었으며, 선우순은 평양·대동유림회의 부회장(1924), 황석룡은 사례부장(1922), 회장(1924)이었다.<sup>114)</sup>

108) 朴魯哲, 『箕子研究餘草(三)』, 『동아일보』 1932.3.21

109) 관련 연구사는 박준형, 2015b 앞의 논문, 114-115면 참조.

110) 政務總監→道長官(京畿·慶北·慶南·平南) 宛, 『歷代殿陵命免二關スル件(1912.11)』, 『寺院神道關係書類』(朝鮮總督府學務局宗教課 編), CJA0004765, 949-950면, 1919년 9월 월급은 20엔으로 올랐다(『平南의 陵參奉』, 『매일신보』 1923.2.1.).

111) 平安南道知事→朝鮮總督 殿 『歷代殿陵參奉增員ノ件(1923.1.31)』, CJA0004765, 951-953면.

112) 黃錫龍·鮮于峽·金鍾萬→朝鮮總督 殿 『歎願書(1924.11.24)』, CJA0004765, 934-935면.

113) 이태훈, 2007 『『共榮』: 1920년대 전반 친일세력의 고민과 세계관』, 『역사문제연구』 17; 박종린, 2008 『『공영』을 통해 본 대동동지회의 활동과 친일논리』, 『역사와 현실』 69 참조.

〈표 11〉 평양상업회의소 시가별 · 민족별 회원 구성

		1919.4 (부영업세 12엔)		1921.8 (부영업세 16엔)		1923.6 (부영업세 16엔)		1925.8 (부영업세 16엔)		1930.8 (「국세」영업세 12엔)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구	일	42	17%	40	17%	32	17%	42	23%	79	23%
	선	207	83%	201	83%	161	83%	141	77%	269	77%
	합	249	100%	241	100%	193	100%	183	100%	348	100%
신	일	350	93%	373	95%	374	95%	316	94%	387	85%
	선	26	7%	20	5%	19	5%	21	6%	70	15%
	합	376	100%	393	100%	393	100%	337	100%	457	100%
미상		4									
합계		629		633		586		520		805	

출처: ⑤~⑦, ⑩: 1923.5~6 「當會議所會員の町里別分布」 『平壤經濟彙報』 3, 20-22면.  
비고: 점포 위치를 따지는 것이므로, 법인 · 겸업 · 지점 전부 포함

그러나 평양 내 유림들의 숫자는 점차 줄어들었다. 1932년 전체 평남 유생 수 16,318명에 비해, 평양부 · 대동군은 881명에 “불과”했다. 그 중심인물은 전덕룡, 황석룡, 선우협, 나일봉, 조홍익 등이었다.<sup>115)</sup> 모두 「향안」에 수록된 성관 출신 인물들이었다(⑬⑭).

둘째, 반면 구시가는 지역개발 논의와 함께 점차 평양 조선인 상공업자 집단의 구심점이 되었다. 1918년 설립된 평양 북금융조합과 남금융조합은 각각 구시가에서 조선인, 신시가에서 일본인이 조합원 다수를 차지했다.<sup>116)</sup> 또한 부협의회 의원 유권자의 약 4분의 1인 평양상업회의소 회원의 시가별 구성을 보면(〈표 2, 11〉), 민족별-공간별 분리는 유지되고 있다.

3·1운동기에는 국가기록원 「판결문」 수록 평양 거주자 67명 모두가 주소지를 구시가에 두었다. 시위 동선도 구시가에서 신시가로 지향되었다.<sup>117)</sup> 구시가는 3·1운동 이후 1921년까지 일장기 게양 거부, 일부 폐점, 고종 애도 등 단체행동의

114) 각주 97번 참조.

115) 朝鮮總督府, 1932 앞의 책, 220면.

116) 文暎周, 2005 『일제하 도시금융조합의 운영체제와 금융활동(1918~1945)』, 고려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4-33면.

117) 2018 「평양의 도시공간과 3.1운동」 『경성과 평양의 3.1운동』(서울역사편찬원 편), 138-168면.

중심지였다.<sup>118)</sup> 반면 평양상업회의소에 따르면, 평양 3·1운동은 자산가·엘리트 주도였지만 1919년 6월에 이미 민족 간 거래는 일상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sup>119)</sup> 1926년 전기부영화 운동도 산업연관성이 있는 구시가 조선인들과 일본인 구 혁신회 계열과의 연합운동이었다.<sup>120)</sup>

이처럼 구시가는 반일적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도지사 시노다의 말처럼 지역 개발 논의 가운데 「보호색」을 띠었다. 1920년대 평양의 구시가 개발 논의는 크게 두 차례 환기되었다. 첫째, 1919년 대동강인도철교(대동교)의 부설 지점 논의이다(1921년 신시가 연결로 기공). 둘째, 1921년 평원선 기점을 동평양에서 서평양으로 하기로 한 결정 이후, 1928년 서평양시가계획(1929~30)이 우선 시행되게 된 때이다.<sup>121)</sup>

구시가 개발 논의는 지역사회의 구심점 변화와 부협의회 선거에도 반영되었다. 3장에서 썼듯 1923, 26년 최대 규모의 조선인 「공인후보」 선출은 구시가 기반이었다. 특히 1923년 선거 직전 구시가 차별을 조선인 차별에 등치하는 움직임이 강화되었다.<sup>122)</sup> 전 도지사 시노다는 조선인 유력자 30여 명을 불러서 1910~22년 지출된 토목비 중 구시가 대상이 신시가의 2배라며 구역 차별은 없다는 해명을 해야 할 정도였다.<sup>123)</sup> 한편 신시가 기반 의원 지주선은 구시가 개발 문제로 강병욱과 주먹다짐을 하였고,<sup>124)</sup> 사업가로 성공했지만 다시 부협의회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되었다(<부록 2>).

118) 『民情彙報(高警第25435號:秘受10631號, 1919.9.2. 발신)』, 『不逞團關係雜件 朝鮮人ノ部 在內地 八』; 『獨立萬歲唱和二關スル件(平安南道知事報告, 高警第10926號:秘受04449號, 1920.4.15. 발신)』, 『不逞團關係雜件 朝鮮人ノ部 在內地 十』; 『故李太王三週年祭ノ狀況 二關スル件(高警第3640號:秘受1633號, 1921.2.4. 발신)』, 『不逞團關係雜件 朝鮮人ノ部 在內地 十二』

119) 1919.6 「産業界ト騷擾ノ影響」 『平壤商業會議所月報』 30, 4-6면.

120) 「各地에 電氣輿論沸騰」 『조선일보』 1926.3.17.

121) 주동빈, 2021 앞의 논문, 90-98면.

122) 「平壤舊市街의 道路通行難」 『동아일보』 1922.2.3.; 「六萬朝鮮人을 無視」 『동아일보』 1923.3.31.; 「平壤市街의 大差別」 『동아일보』 1923.4.5.

123) 「平壤舊市街市民의 不平」 『동아일보』 1923.3.20.

124) 「所謂 紳士輩의 醜態」 『매일신보』 1923.7.17.

1928년 7월에는 경무국 도서과가 『중외일보』의 「평양구시가번영회」 발기 기사를 붙은 기사로 분류, 「삭제」 처리했다. 이 기사는 구시가 시가계획은 결국 관의 계획일 뿐이며, “조선인 본위의 대평양 건설”을 위해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했다.<sup>125)</sup> 이 번영회가 이름을 바꿔 1928년 12월 결성한 평양상공협회는 구시가를 구심점으로 했다. 9월의 조만식의 인터뷰처럼, 상업회의소에 맞선 구시가의 상업적 통일기관을 강조한 것이다.<sup>126)</sup>

1931년 3월 마지막 부협의회(제139회)에서 일부 조선인 의원의 쟁점화 주제는 구시가 전차사업이었다. 원안에 없는 기림리-서평양역 간 궤도복선 부설비를 부 예산에 포함하고, 대신 전차설비비 일부 및 전차 2대 구입비를 제외하라는 것이었다. 일본인 의원들은 그들이 수적 다수를 활용한다며 항의하고 퇴장했다. 부운은 긴급히 비밀리에 도지사, 내무국장 라인에 보고하면서, 차기 선거를 위한 급작스러운 쟁점화일 뿐이라 보았다.<sup>127)</sup>

〈표 12〉 1920년대 평양부협의회 조선인 의원의 '혈연-공간적' 구성

	구시가	신시가	총원
㉓ 「향안」 포함 성관 혹은 참봉 경력자	3	4	7
㉔ 「평양대지」 수록 본관 작성자 중 「향안」 미포함 성관	5	3	8
㉕ 「평양대지」 수록 및 본관 미작성	4	0	4
㉖ 「평양대지」 미포함 및 본관 미상	12	0	13
총원	24	7	31

출처: ㉓㉔, 〈부록 2〉

이렇게 구시가 조선인들이 신시가에 비해 구역 개발 및 업종을 매개로 구심점

125) 1928 「削除 『中外日報』(『(地方時論)舊市街繁榮會發起ヲ聞イテ』)」 『(昭和三年六、七、八月)諺文新聞不穩記事概要』(警務局圖書課 編); 雨聲生, 「(地方時論)舊市街繁榮會 發起를 보고」 『中外日報』 1928.7.15.

126) 오미일, 2002 앞의 책, 316-322면.

127) 「電車復線問題で」 『朝鮮新聞』 1931.4.1.; 平壤府尹→平安南道知事 殿, 「府協議會狀況報告(平府秘第66號, 1931.4.4.)」, CJA0002866, 256-266면. 신문에 따르면 논의를 주도한 것은 오승은, 이기찬, 최정묵, 한근조 등 구시가 기반 변호사들이었다. 단, 평양 전차 문제는 별도의 논고를 요한다.

을 형성한 이유는 혈연·지연 등 1차적인 사회적 네트워크 확보조차 어려웠기 때문이다. <표 12>에서 ㉠㉡는 문중 조직에 속하거나 적어도 본관은 알 수 있는 경우이다. ㉢㉣는 본관이 미표기되거나 당대 관련 기록이 없는 경우이다. 즉, 조선인 중 신시가 의원은 전부 성관을 알 수 있었던 반면, 구시가 의원은 성관이 당대 자료에 기록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물론 혈연질서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었다. 신탄상·연탄상이었던 김능수(1897~1939)는 변호사 이기찬과 1930년대 평양부회 조선인 양대 인물이었다. 1939년 급사 전까지 평양(상업)상공회의소-평양부(협)회 양익을 장악했다.<sup>128)</sup> 13세 손위인 동우회 계 김동원(1884~1951)이 상공회의소 부회두가 된 것은 김능수의 사망 이후였다. 이유는 무엇일까.

“김(능수 - 필자 주)의 본관은 황해도 은율군<sup>129)</sup>, 명실상부한 반일 조선인의 산지이지만, 그의 장형 김능원은 지금 현재 평양의 거만(巨萬)의 재(財)를 모으고 도평 의원의 임무를 맡고, 조카 김수철(金壽哲)도 최근 영원군수가 되어서 슬슬 명성을 모으고 있다. 그래서 다행히 조만식, 김동원의 아류를 배우지 않고, 가장 이성적으로 가장 용감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은 나아가고 멈춰야 하는 것은 멈춘다면, 머지않아 명실공히 완전한 평양 구시가의 리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0, 강조는 필자).”

김능수의 본격적 부상은 만 32세인 1929년 조선인들의 『반일감정』을 통합하여 평양상공협회 부회두이자 상업회의소의 실질적 회두로 활동하면서부터였다. 회두 박경석은 상황을 등에 업고 당선되었지만, 일본인 부회두 2명이 있는 가운데 실권은 없었다. 대신 무임소 부회두로서 김능수가 조선인 평의원 14명의 실질적 지도자였다(㉠).

위 인물평은 김능수의 명망이 29세 차의 장형 김능원(1868~1933)에게서 왔다고 했다. 김능원은 1923년 비세습직이 된 참봉직 취임과, 대동보소 종약소장 취임을 통한 족보 작성에 집중했다.<sup>130)</sup> 그럼에도 1920년대 부협의회 진출에는 조

128) 이기찬, 김능수의 위상은 주동빈, 2020 앞의 논문, 245-248면 참조.

129) 일본인 필자가 『원 거주지』와 『본관』을 헛갈린 것 같다. 『평양대지』와 신문을 볼 때, 나주김씨가 맞다(㉠, 174, 182: 『族譜한다고 橫領消費』 『조선일보』 1929.7.28.).

130) 平安南道知事→朝鮮總督 殿, 『歷代殿陵參奉增員ノ件(1923.1.31.)』, CJA0004765, 951-953



선인 업종·구역 대변이란 새로운 요소가 필요했다. <표 12>의 구시가 ㉮에 속하는 3명을 보면, 김능수는 신탄상·연탄상, 최정묵은 변호사, 양계점은 인쇄업자였다(<부록 2>, ㉮⑭).

『강한 국가, 약한 사회』란 계층을 막론하고 의지처(依支處)가 많이 없다는 말이다. 서북지역은 혈연질서가 약했던 것처럼 인식되었으나, 역설적으로 식민지기에 유지·강화되었다. 평양 구시가 조선인 상공업자들은 신시가보다 혈연질서에서 비교적 '자유'로웠지만, 완전히 단절할 수 없었다. 이들은 일본인과 교류하면서도 배외주의적 감정을 구축했다. 수양동우회 등도 이런 혈연-공간에 놓인 조선인 소상공업자 집단의 일상생활 위에서 움직였다.

단, 총독부는 개성·함흥을 부(府)로 편입하되, 평양부에 가능자를 들이대면서 부협의회 의원 자격을 조정했다.<sup>131)</sup> 학교평의회도 부협의회와 통폐합되었다. 따라서 1931년 제도적 의결기관 설치에도, 업종·구역 중심점의 조선인 의원 약진은 과제로 남았다.

## 5. 결론

본고는 1920년대 평양부협의회 선거와 조선인 지역유력자의 '혈연-공간적' 변동을 다루었다. 첫째, 부협의회는 『공직 3단체』 중 조선인들에게 유권자 범주가 가장 넓은 기구였고, 상공업·재정이란 사안을 다루었다. 유권자는 유산자·정주자·남성 세대주였다.

둘째, 1920년대 평양부협의회 구성을 보면, 특히 1926, 1929년 조선인 당선자의 3분의 1에서 2분의 1인 7~10명이 전문직이었다. 같은 시기 1~2명 남짓한 경성·부산과 달랐다. 법학·의학이란 근대적 지식을 매개로 피식민자 상공업자의 열위를 대변하려던 시도였다.

문: 『族譜한다고 橫領消費』 『조선일보』 1929.7.28.

131) 동아일보는 1931년 선거 직전 이 점에 대해 비아냥대는 투로 말했다. 『휴지통』 『동아일보』 1931.4.4.

셋째, 구시가 조선인 지역유력자의 영향력이 강화되었다. 경성과 달리 평양은 신시가가 전통유력자의 세거지였고, 1910년대 의원들과의 인적 연속성도 강했다. 1920년대 신시가 조선인 지역유력자는 외성에 오래 세거했다. 식민지기에조차 이들의 명망은 기자 및 동명왕 전릉들의 참봉이란 미관말직(微官末職)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이들은 실력양성론 범위 안에 있었고, 유림회, 대동동지회를 매개로 한 교육사업 지향이 강했다.

반면 구시가 조선인들은 독자적 조선인 상공단체 조직, 전기부영화 운동, 구시가 개발 개입 등 구역 개발 및 업종을 매개로 구심점을 형성했다. 이들은 식민 권력이 주조한 근대적 행정기구에 가장 기민하게 반응한 이들이었다. 결코 혈연 질서에서 자유로웠던 것은 아니었다. 혈연·지연 등 1차적인 사회적 네트워크 확보조차 어려웠기 때문이다. (수양)동우회와 『동아일보』 지국, 그리고 『조선일보』 지국도 이런 구시가의 여론 위에 있었다.

단, 지역사회 내 힘관계가 ‘구시가 조선인’으로 경사(傾斜)하게 되는 것은, 1930년 「부제」 개정으로 제동이 걸렸다. 이런 지역사회 변동은 해방 후 월남한 서북파 인사들의 「민족주의」라는 자기표상의 구축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본고는 개인, 단체보다는 사람들이 발 딛고 서 있는 공간으로서 평양에 주목했다. 발전단계론보다는 이식된 기구와 전통적 요소들의 결합을 통해 「민선」 전환 이후 평양부협회의의 ‘혈연-공간적’ 전환을 확인했다. 반면, 노동운동가, 사회주의자, 천도교 신자, 도외(道外) 유입자들은 과소·부재했다. 그 이유와 구시가의 이후 모습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를 요한다.

주제어 : 평양부협의회, 실력양성론, 신시가 조선인, 구시가 조선인, 단군-기자 계승의식, 참봉, 문중, 전문직(변호사·의사), 상공업자

투고일(2022. 1. 27), 심사시작일(2022. 2. 14), 심사완료일(2022. 2. 25)

<부록 1> 1910년대 관선 평양부협의회원(1914.4.7.~1920.11.20.)

이름	활동 시기	직업	출신 (현)	기반 (직장)	민단	商議	학교 조합	이력
板倉益太郎	1기 (전)	商	오사카	죽전리	○			1875~1936, 관 2~4회 임명일은 '16.4.7, '17.4.2, '19.6.10. 조선 이주('03), 무역상, 총대역소[민단전신] 의원, 板倉상점 경영('17), 평남지방토지조사위원회 위원('14, 18)(①②③ 『朝』 '36.11.9)
宮川五郎三郎	1기 (전)	商	후쿠오카	류정	○	●		1867~1949, 관 2~4회 임명일은 '16.4.7, '18.4.12, '20.4.21. 겐요샤 출신, 청일전쟁 이후 정착, 소유·미소제조, 平壤毎日新報 사장, 평양전기(株)('10~27) 운영, 전기부영화 직후 후쿠오카 복귀(①①, 松田節男, 1941, 주동빈, 2020)
大庭貫一	1-1기	民			○			?~1914, 관선 1회, 출신, 기반지역 미상. 전 평양민회 민장, 임기 중 사망(①, 『매』 '14.6. 1)
弦間孝三	1-2기	醫	야마나시	육정				?~?, 관선 2회('14.6.6.), 의사(桃蹊堂病院, 화류병, 피부병 전문), 평양토지건물(株) 감사('29~31)(①, 『매』 '15.2.13 『鮮』 '33.11.20)
森田奈良治	1-3기	商藥	나라	대화정				?~?, 관선 3회('16.12.21), 오사카약학교 졸업, 약중상, 평양홍신·서선조합·평양무진·동아파트 등 관여('21~42, ①, ①④)
奥田延之助	1-4기	商	미에	육정	○	副 ◇	○	1873~1925, 관선 4회('19.1.16), 평양 이주(1895), 거류민단 의원, 평양매일신문 중역, 평양키네마 사장, 학교조합 의원, 제지, 인쇄업(①, 『京』 '25.12.23)
松井民治郎	1기 (전) 3-1기	商	시즈오카	수정	○	◎ ○		1865~?, 관선 1~4회(宮川과 임명일 동일), 조슈별 야마가타 아리토모(山形有朋, 1838~1922)의 동서, 大倉組 출신, 진남포 신시가 매축으로 이주('04), 광업 중사('07, '19), 관선 평남도평의원('20~27), 중개업, 수정 町里組長('33)(①⑤⑥⑦⑧⑨⑫⑭)
大橋恒藏	1기 (전)	商林	기후	항정		◎ ○	○	1875~1935, 관선 1~4회(宮川과 임명일 동일), 府立大阪商業學校, 토목건축업자로 평양 이주('05), 학교조합 의원('17~20), 서선조합(株) 대표('19), 상업회의소 평의원('19), 平壤毎日新報 사장(①~③⑤, 松田節男, 1941)
齋藤久太郎	1-1기	商	나가사키	이문리 ('21)	○			1874~?, 관선 1회, 거류민단 의원, 곡물상조합연합회 간사장, 평남북, 황해, 전남, 충남에 농장 소유(①,⑥)
伊藤佐七	1-2기 3-1기	商	야마구치	이문리		○		1873~?, 관선 2회('14.6.29), 평양 이주(1898, 무역상), 총대역소 의원, 평양신탁('20), 평양무진('25), ①②)

淺井佐一郎	1-3기	商	시즈오카	수옥리	○	○	1863~?, 관선 3회('15.4.21) 慶應義塾 졸업(1885), 시즈오카현회 의원(1891), 일한공익회사 전무이사로 도선('06), 거류민단 의원, 한국창고(株) 평양지점 지배인, 한성은행 평양지점장, 평양전기(株) 이사('11, ①②)
林 長太郎	1-4기	商	나가사키	관후리 대화정	○	副 ◇ ○	1870~?, 관선 4회('19.1.28) 오사카에서 조선무역 관계(1895), 평양 이주('11), 총대역소 의원, 상업회의소 부회두, 무역업('17), 비료·대리석제상, 총포화약상('21)(①②③⑥)

이름	활동시기	직업	출신	기반(직장)	商議	學評	이력
鄭仁叔	1-1기	官商		남문동(舊)	○		?~?, 관선 1회, 보성전문 법과 출신, 도 참사, 평양만민공동회장('07), 평양자기회사('08) 『105인사건』 불기소자('11), 평안무역 검사위원, 염직·양말업('36), (①④ 『매』 '12.12.15 『平壤商工名簿』[1936], 윤경로, 2012)
朴鳳輔	1-2기	官		항정			?~?, 관선 2회(板倉과 임명일 동일), 동명왕릉 참봉, 대한협회, 서우 참여(①, 승정원일기 '03.12.11; 『朝鮮總督府官報』 1698, '18.4.8)
金南鎬	1-3기 1-4기	商	평남 순천	죽전리	副		1856~?, 관선 3~4회(宮川과 임명일 동일), 평양자기제조(주) 대표('10), 상업회의소 부회두, 무역상(①②③⑤⑥)
朴經錫	1-1기	官商		이항리 죽전리	副 ○ ◎		?~?, 관선 1회, 대한제국기 참봉(『황』 '01.7.12: 『매』 '08.10.28), '16~19.12, 평양부 참사, 제도업(製陶業, '17, 19), 무역업('21~25)(①, ③, ⑤~⑩)
林錫奎	1-2기	商	평남 덕천	이문리			1876~?, 관선 2회('15.3.29), 1895 덕천군 이탈→평양 복귀 후 무역업('17~25), 북금융조합 감사('23, ①, ③, ⑤~⑩ 『동』 '23.5.3)
李春燮	1-3, 4기 2-2, 3기	官商		관후리 차관리	◇ ○	○	1879~?, 관선 3~4회('17.4.21, '19.6.10), 무안감리서 주사('00) 『105인사건』 기소자('11), 포목판매업('17, 19), 재목('21, 25), 예수교 장로(①③, ⑤~⑩; 윤경로, 2012)
鄭在命	1기 (전)	官商	평양	항정	●		1861~1947, 관선 1~4회(宮川과 임명일 동일), 기자참봉, 평양부 참사, 서북학회 회장, 금융조합장, 잡화상('17), 직물업('19)(①⑤⑥; 정중현, 2021)
黃錫煥	1기 (전) 2-2기	官商	평양	교구정			1875~?, 관선 1~4회(宮川과 임명일 동일), 평양외성 인민총대(『매』'06.8.1), 대한자강회 회원('07), 평양자기제조(株) 감사역('16), 박치록 이전 광문사 취

							체역(~'26) 『향안』 기록(⑩⑬ 『朝鮮總督府官報』 1058, '16.2.16.; 4124, '26.5.20.)
金能元	1기 (전)	官 醫	평양	계리	●	○	1868~1933, 관선 1~4회(宮川과 임명일 동일), 과거 합격(1888, 생원), 부 용흥면장(1892, '09), 의생면허, 계리 민풍개선(기념)조합장('14), 평양대동유림회 재무부장('24), 평남유림회 재무부장(⑩③, ⑤~⑩ 『매』 '22.3.5; '24.3.14; '30.12.20.; 『중』 '33.4.14)
金鎮根	1기 (전)	官		수정		○	1878~?, 관선 1~4회(宮川과 동일, 4회만 '20.4.29) 대한제국 관료, 신학문 이수(⑩ 『朝鮮總督府官報』 1547, '17.9.29)

출처: ㉗ 민단: 본문 18번 각주 ㉘ ④ 상업(상공)회의소: 田中市之助 編, 1936 『(始政廿五年記念)全鮮商工會議所發達史』, 釜山日報社, 平壤篇; ㉙ 학교조합·평의회: 본문 18번 각주 ㉚ ⑨: 角田廣司 編, 1917 『(在朝鮮內地人)紳士名鑑』, 朝鮮公論社, 부록 402-403면; 『京』 1917.5.22; 1923.5.23; 1924.3.5; 1926.5.23; 1929.5.23; 『매』 1915. 4.29; 1920.5.25.; 1924.4.4.; 1930.4.3.; ㉛ 이력: 본문 18번 각주: 松田節男, 1941, 앞의 책; 홍순권, 2010, 앞의 책; 윤경로, 2012, 앞의 책; 정중현, 2021 『특별한 형제들』, 휴머니스트

비고: ① 거류민단(전신인 총대역소 포함), 회의소[商議], 학교조합·학교평의회[學評]의 각 란(欄)에서 ○는 거류민단장, ◎는 상업(상공)회의소 회두, 副는 부회두, ●는 특별평의원(특별위원), ◇는 상무위원(상의원), ○는 거류민단(전신 총대역소 포함) 의원, 상업(상공)회의소 평의원(의원), 학교조합·학교평의회 의원(홍순권, 2010, 앞의 책의 방법 원용. ② 활동이력은 1기(전)은 1910년대 전 시기, 2-1기는 1920년대 제1차 임기. 단, 1943년 추천선거제는 「'43년」이라고 표기. ③ 직업 표기는 '商'(광의의 상공업), '官'(관직 경력), '辯'(변호사), '醫'(의사), '藥'(약사), '林'(임업) ④ 책·논문은 사회과학식표기, 신문은 『독』(독립신문) 『시』(시대일보) 『조』(조선일보) 『동』(동아일보) 『매』(매일신보) 『중』(중앙일보) 『조중』(조선중앙일보) 『京』(京城日報) 『朝』(『朝鮮新聞』) ⑤ 출신·기반 미상은 공란, 조선인의 출신은 평양 출신이 명기된 경우나 타 지역인 경우만 표기

〈부록 2〉 1920년대 「민선」 평양부협의회 의원 이력

이름	활동 시기	직업	출신 (현)	기반 (직장)	민단	商議	학교 조합	이력
江崎萬八	2-1, 4기 3-1기	商	나가사키	행정				1877~?, 행정 町里組長('26), 평양 유일 연초제조상('06), 연초전매제 이후 조선소주제조(①①③⑦⑧⑩)
金子重寬	2-1기	醫	구마모토	수정				1881~?, 구마모토의전 졸업, 육군 군의, 好生堂病院, 치과·화류병 전문('14), 福壽土地建物(合資)('29~33) ①①)
内田錄雄	2기(전) 3-1, 2기	商	구마모토	남정	○	○ ◎	○	1869~?, 남정 町里組長('33), 거류민단 의원('10~13), 학교조합 의원('17~23), 상업회 의소 의원('17~27), 평남도회 의원('27~35), 경인철도 기사로 도선, 토목청부업 종사(~'14), 부업이었던 원예업 종사(①①②)
徳永 金	2-3기	商		팔천대정				1877~?, 토목청부업, 석탄제조, 공중목욕탕('25, ⑦ 『京』'26.11.23.)
稻葉善之助	2-4기 3기(전)	醫 商	미야기	본정			○	1881~1940, 본정 町里組長('26), 도쿄지케이 카이이학교 졸업 「조선 연와제조 원조」 稻葉常松의 양자로서 조선(평양) 이주('09), 겐요샤 출신, 稻葉病院(화류병 전문)('14), 연와제조('30), 평양매일신보사 사장('35~40)(①①⑧⑩, 松田節男, 1941)
藤井定太郎	2-2기	商					○	토목청부업자, 橋本組, 中平組 활동('33~41)(①)
瀧本 理	2-1, 3기 3-1기	辯	야마구치	남산정				1888~?, 니혼대학 졸업('14), 평양 변호사 활동('15~31) 평양변호사회장(①)
福西彦太郎	2-1기	商		빈정				?~?, 신탄상(⑤)
山下友次郎	2-4기 3-1기	商	가고시마	천정				1885~?, 전기청부업, 농상무성 공업시험장에서 전기화학 연구('11), 이후 富士電氣化學工業, 山梨工業, 甲府電化工業 등 근무, 전흥 근무('20~21), 電友社 운영, 전기청부업(①)
石隈信乃雄	2-3기 3-2, 3기	商	사가	남산정		●	○	1872~?, 남산정 町里組長('26, 33), 한미전기회사 기수로 조선 이주(1898~'09), 대전 전기, 목포전기 설계('10), 한성광업('13), (구)조선송전(주) 상무취체역('28), 서선합동전기 합동 관여(①⑧⑩)
小林彌平	2-4기	商		진정				1882~?, 賑町 2區 町里組長('33), 은행(평양은행, 대동은행), 대좌부(미인루 주인), 평양 여채시장('37, 39)(① 『京』 '26.10.10)
小林文二	2-1~3기	商		대화정		◇ ○		1880~?, 포목상, 부산일보 서선지사장(⑦ 『釜』 '25.9.2.; 『京』, '26.11.23)

松尾六郎	2-2~ 4기 3기(전) '43년	林	오카 야마	팔천대 정				○	1876~?, 조선 이주('04) 『삼림령』 발포 후 서선조립합자회사 창설 및 대표사원('12~), 팔천대정 町里組長('33)(⑩⑫)
尋木廣吉	2-1기	商	후쿠 오카	육정					1884~?, 청부업, 용달업, 다다미상(⑩⑥)
野路增吉	2-1기	商		남문정 교구정					?~?, 남문정 町里組長('26), 주철업, 丸鑄商行(合資)('21~23), 미카도백화점('27), 東洋鑄鐵工業所(合資)('33~42)(⑩⑧)
奥田英一郎	2-2기	商		항정				○	?~?, 학교조합 의원('20~23), 평양신탁 이사('21~33), 곡물상(⑩, 『매』 '20.5.25)
原田貞輔	2-1, 4기 3기(전)	商	야마 구치	이향리 선교리				○	1892~?, 鑄造業. 이향리('21)→선교리('29)(⑩)
一柳村五郎	2-1, 2기 3-2기	商	에히 메	남문정	○	◇	○		1875~1936, 거류민단 의원, 학교조합 의원('20~23), 대가업, 보험업, 평양식료품시장('21), 평양어시장('25~35), 평양키네마('25~27)(⑩①②③④⑤⑥, 『매』 '20.5.25; 『平壤彙報』 62, 1936.9.)
在間行太	2-1기	商	아이 치	수옥리	○		○	副	1873~?, 조선 이주('06), 거류민단 의원, 구미잡화상, 상업회의소 부회두('21~23)(⑩①②⑥)
佐久間萬吉	2-3, 4기	商		육정					1865~?, 육정 町里組長('33), 대서업(『京』 '26.11.23, ⑫)
竹中治兵衛	2-1기	商		수정	○				?~?, 거류민단 의원, 정미업, 곡물상(②⑥)
中山電三	2-4기	商		육정			○	○	1878~?, 기성양복점, ⑥ 『京』 '29.11.21)
中村濱吉	2-1~ 3기	商	미에	육정					1870~?, 사진판매업((⑦⑦④)
中平岩藏	2-3기	商	나라	본정			◇ ○	○	1871~?, 中平組(토목청부업(⑩③ 『京』 '26.11.23)
辰巳彦三郎	2-2~ 4기	商		육정					1866~?, 포목상('14), 평양신탁('26)(⑩① 『京』 '26.11.23)
村上忠五郎	2-3기	商		수정					1870~?, 사미센(三味線)상, 악기점(⑩⑤⑦ 『京』 '26.11.23)
平井喜則	2-4기 3-1기	商		선교리				○	1880~?, 大日本製糖 영업과장『京』 '29.11.21; 『鮮』 '33.7.5)
丸山理平	2기(전) 3-2기	商		류정	○		○		1875~?, 출신 미상, 류정 기반, 거류민단 의원, 광업('17), 우유판매업, 권변(⑩② 『(48) 統監의 연설에 대한 민심의 의향 보고(1909.2.6.)』 『統監府文書』9, 국사편찬위원회, 1999; 『朝鮮總督府官報』 1917.10.24)

이름	활동 시기	직업	출신	기반 (직장)	商議	學評	이력
康秉鈺	2-1~3기	醫	평북 운산	관후리		○	1880~1928. 관비유학생('05), 치바의전('06~10), 총독부병원 근무('10), 순천병원장, 중추원 참의, 평양대동유립회 부총무('24)(⑩, ④ 『매』 '24.3.14 『중』'28.7.31)
金能秀	2-3~4기 3-1~2기	商		죽전리	◇ 副	○	1897~1939, 객주 출신, 金能元의 동생, 일신학교, 메이지대 정치경제과(전문부) 졸업, 평양상공협회 부회장, 평양상공회의소 부회두, 비료, 연탄판매, 무역상(㉞⑩⑪, 주동빈, 2020)
金鳳淳	2-4기	商		순영리→염점리·향정			1875~?, 가구업('21, 25)→목재·신탄상('30), 평양 산정현교회 집사('08~23), 김동원·오윤선 등 해당 교회 3장로('39, ⑥~⑩ 『京』 '29.11.21 『동』'39.10.25; 길선주, 1968)
白潤植	2-1~3기	商		수옥리		○	1881~?, 대한협회 관여, 가구업, 평양 북금융조합 평의원('23, ⑩⑥⑦ 『동』 '23.5.3 『죽보』)
邊麟奇	2-3~4기 3-1~2기	醫	평양	이문리		○	1892~?, 평양일어학교('02~07), 일본 관광('09), 평양의생학교('07~10), 평남 자혜의원 조수('10~11), 형 변인희와 희생병원 운영, 개신교 신자, 외과·화류병과·부인과(④)
鮮于金+筍	2-1~3기	商	평양	육로리 약송정			1891~1933, 일본 도시사대 신학과 졸업('14), 평양기성기독교교회 전도사('15), 정미소 운영('17~), 대동동지회 조직('20), 중추원 주임관대우 참의('21~33), 평양대동유립회 부회장(⑥ 『매』 '24.3.14 『사건』)
孫壽卿	2-2~4기	醫		육로리		○	1884~?, 경성의전 졸업('11), 대동의원 운영(『동』 '24.7.7; 『京』 '29.11.21; 『京城醫學專門學校一覽』, 1926)
宋永祥	2-4기 3-1~2기	辯		교구정 관후리			1887~?, 관립평양일어학교 졸업, 재판소 서기 임명('08), 통감부·총독부 재판소서기로서 근무(~'24), 주오대 법과 졸업, 변호사 개업('28)(⑩ ⑮)
楊基鶴	2-3기	前官		류정			1889~1940,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 참여, 남금용조합 평의원('26, 29)(⑩⑨ 『京』 '27.4.26, '29.5.1 『죽보』)
楊濟謙	2-2~3기	前官 商		관후리			1893~1964, 평남 일대 군 서기('11~18), 도 서기('20), 메이지대 법대 졸업, 인쇄업[광문사] 지배인('23, ⑩⑥ 『동』 '23.10.30 『죽보』)
吳崇殷	2-3~4기 3-1기	辯	평북 철산	계리			1888~?, 평북 차련관 일어학교 졸업, 배재학당 진입('05), 일본 유학 후 메이지대 법대 졸업('16), 관검사임용시험 합격 후 해주, 평양지방법원 검사 역임('20~22), 변호사 개업, 평남도



						평의회 의원 당선('30.4), 요덕금광 매매 사기사건, 징역, 자격 박탈('35~37)(『사전』)
玉東奎	2-3기	辯		염점리	○	1868~?, 성균관 박사(1898), 대한제국기 변호사 『대한매일신보』와 양기탁 변호, 대한협회, 서우관여, 105인사건 관련, 평양대동유림회 편집부장('24), 평남유림회 교육부장('30)(『承政院日記』 1898.5.18.; ⑩⑬, 『매』 '24.3.14; '30.12.20; 『족보』)
李基燦	2-2~4기 3기(진) '43년	辯	경기 진위	관후리		1887~1945, 관립법관양성소 졸업('07), 관사 임용 후 함흥, 평양 근무('08~13), 변호사 활동, 중추원 참의('36~45) 등(『매』 '13.7.3; ⑬, 『사전』)
李東悅	2-3기	商	평남 대동	육로리 박구리 류정		?~?, 평남 대동 출신, 평남 중화 논 소유('19).. 육로리('17)→박구리('21), 고리대금업('17~), 동양고무 조합장(류정 소재, '26~)(⑩③⑤⑥⑦⑩, 『개벽』 51('24.9); 『동』 '26.5.20, 5.21, 9.10)
李東初	2-4기	辯		육로리		1882~?, 메이지대 법대 졸업('08), 평남유림회 이사('30)(⑬ 『매』 '30.12.20 『京』 '29.11.21)
李性直	2-1기	商		관후리	副	?~?, 객주, 여인숙, 연연초('17, 19, 21), 상업회의소 부회두('21~23)(⑤~⑦)
李裁純	2-4기	商		계리	○	1891~?, 『105인사건』 불기소자('11), 정미업(동양정미소), 서경상공(~'29)(⑤⑥ 『동』 '29.3.9; 『京』 '29.11.21; 윤경로, 2012)
李春燮	1-3, 4기 2-2, 3기	官 商		관후리 차관리	◇ ○	○ <부록 1> 참조
林泰華	2-3~4기	商		수정		1883~?, 면옥업(면옥노동자 파업 사측 교섭위원 ['26, 28], 평양면옥조합 재무['29], 林면옥['29~31]), 곡물·목재·신탄(36, 항정)(⑩, 『조』 '26.11.19; '29.12.2; 『동』 '28.12.18; '31.2.9; '31.6.19 『京』 '29.11.21.; 『平壤商工名簿』[1936])
鄭奎鉉	2-2~4기	商		육로리	○ ○	1889~?, 정미업(평안정미소), 와세다대 정치과, 물산장려운동 참여, 육로리 정리조장('26.5, ③⑥⑧ 『동』 '27.1.22; 『京』 '29.11.21.)
鄭世胤	2-3~4기 3-1기	醫 商	평양	염점리		1883~?, 경성양잠전습소('00), 평양 귀환 후 양잠업 고취('01), 동생에 위임 후 일본 유학, 지케이카이의학전문 졸업('05~14), 재도쿄조선인 학우회 초대 회장, 소아과 의사, 조선노동공제회 지회장('20), 조선물산장려회 발기인('20), 평양 북금융조합 평의원('23), 조선염직(합명)의 운영(1924~42), 조지 맥칸과 활동광산(1933~35) 운영(④ 『공제』 1('20.9) 『동』 '20.8.23, '23.5. 3)
鄭寅河	2-3~4기	商		신창리	○ ○	1882~1936, 중추원참의 鄭觀朝의 子, 제1회 평양유학생('06)으로 메이지대 졸업, 무역상, 곡물

	3-1기						상, 자동차경영, 농사개량 등 (⑩⑪⑫ 『매』 '36.7.21)
池周善	2-1기	商		남문정			1880~1939, 자전거업('19, 21, 25), 조선소주 제조('30), 칠성소주 사장('36~39)(⑤~⑩ 『朝』 '36.10.15, '39.7.18 『매』 '39.7.19)
崔蒙煥	2-3기 3-1기	農		교구정		○	1888~?, 승령전 참봉('02), 농업, 평양약령시조합 부조합장('35 『(大韓帝國)官報』 2328, '02.10.11.: 『동』 '25.3.8; 『중』 '35.2.19, ⑫)
崔成九	2-4기	醫		대찰리		○	1889~?, 평북자혜의원('10), 평양북금용조합 평의원('23), 평양연합기독교병원(대찰리, '25), 평양경찰서 공의('35), (⑩ 『동』 '23.5.3; '25.8.20, '26.7.23; 『시』 '25.12.11; 『京』 '29.11.21.: 『매』 '35.5.16)
崔順貞	2-1기	前官 商		상수리		○ ○	?~?, 전 경찰, 매일신보 지국장('21, ⑥)
崔鼎默	2-4기 3기(전) '43년	辯		설암리			1900~1950, 경성법전 졸업, 총독부 검사(~'23), 변호사('28), 조선일보 평양지국장('31)(⑩⑫⑬ 『조』 '31.11.12 『동』 '50.3.23)
韓根祖	2-4기 3-2기	辯	평남 강서	관후리		○	1895~1972, 메이지대 법대 졸업, 변호사시험 합격, 신간회 평양지회 부회장, 해방 후 평양시장, 법무차관, 조선민주당 최고위원(⑩⑫ 『동』 '22.10.14, 이균영, 1993: 주동빈, 2020)
韓錫鱗	2-4기 3기(전)	商		순영리			1883~?, 관립사범학교 졸업 후 훈도 활동, 철물상, 평양기독교청년회('25), 고무공장 및 금융조합 평의원 관여, 박홍식의 장인(⑦⑫⑬ 『조』 '49.2.2., 선우기성, 1973)
韓允燦	2-1~ 3기	商		이문리		○	1877~?, 한문학 수학(1884), 농업 투신(1895), 상업계 투신 후 우피판매업 종사(1897~), 일본어 능통, 조선물산장려회 발기인('20), 평양 북금융조합 평의원('23)(③ 『동』 '20.8.23, '23.5.3)
黃錫煥	1기(전) 2-2기	官 商	평양	교구정			<부록 1> 참조

출처: <부록 1> 참고문헌: 京城醫學專門學校 編, 1926 『(大正十五年)京城醫學專門學校一覽』; 길선주, 1968 『평양산정현교회사기』, 『영계 길선주 목사 유고 선집』 제1집(길진경 편), 대한기독교서회; 楊濟玉 編, 1969 『中和楊氏世譜』, 南山; 선우기성, 1973 『한국 청년운동사』, 금문사; 이균영, 1993 『신간회 연구』, 역사비평사; 水原白氏大同譜編纂委員會, 1997 『水原白氏大同譜』 16; 宜寧玉氏大同譜編纂委員會 編, 2000 『宜寧玉氏大同譜 卷之三』, 回想社;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편, 2009 『친일인명사전』 1~3, 민족문제연구소; 주동빈, 2020, 앞의 논문

비고: 직업, 출처 표기는 <부록 1>과 동일, 족보는 『족보』, 친일인명사전은 『사전』으로 표기

<부록 3> 평남 도평의회 의원(최초 선출자, 1921~1933)

	선출 방식	명단	숫자 (평양)
1921년	「관선」	富田儀作, 鄭觀朝, 林祐敦, 金仁梧, 松井民治郎, 西崎鶴太郎, 宮川五郎三郎, 大橋恒藏	8(4)
	「민선」	朴昌河, 申龍淵, 金元穆, 李教植, 馬場嘉藏, 金仁穆, 洪鎮衫, 李冕均, 李寅彰, 久保順吉, 金商俊, 李陽瑞, 尹台鎮, 白崙琥, 金景林, 崔昌鎬	16(1)
1924년	「관선」	松井民治郎, 宮川五郎三郎, 大橋恒藏, 鄭觀朝, 朴經錫, 富田儀作, 西崎鶴太郎, 林祐敦	8(5)
	「민선」	康秉鈺, 川添種一郎, 李東悅, 金寬善, 朴用玩, 金瓚洙, 李冕均, 金商俊, 宋峻燮, 金元穆, 金晉洙, 金淵穆, 李晉奎, 崔昌鎬, 吳鍾泳, 白崙琥	16(1)
1927년	「관선」	西崎鶴太郎, 朴經錫, 富田儀作, 林祐敦, 大橋恒藏, 內田錄雄, 鄭觀朝, 宮川五郎三郎	8(5)
	「민선」	鄭世胤, 川添種一郎, 李教植, 金基珽, 趙元祚, 孫道厚, 金觀鍾, 金商俊, 宋峻燮, 魯一衡, 金駿鍵, 韋基喆, 李善郁, 李寅根, 徐丙勳, 姜炳駿	16(1)
1930년	「관선」	西崎鶴太郎, 富田儀作, 李教植, 大橋恒藏, 內田錄雄, 鄭觀朝, 金能元, 福島莊平	8(5)
	「민선」	吳崇殷, 李炳浩, 朴炳鉉, 金觀鍾, 尹永善, 金晉洙, 李鶴林, 安仁錫, 金德翁, 崔東稷, 金潰洙, 金商俊, 裴冕夏, 洪彝道, 崔昌鎬, 白崙琥	16(1)

출처: 『平安南道告示第112號(1920.12.25.)』 『朝鮮總督府官報』 第2520號, 1921.1.8.; 『平安南道告示第18號(1924.4.1.)』 『朝鮮總督府官報』 第3490號, 1924.4.5.; 『平安南道告示第18號(1927.4.1.)』 『朝鮮總督府官報』 第79號, 1927.4.7.; 『平安南道告示第30號(1930.4.1.)』 『朝鮮總督府官報』 第990號, 1930.4.24.

비고: 볼드체는 평양 선출자

〈Abstract〉

Pyongyang Municipal Assembly Elections and 'Kinship-spatial'  
Fluctuations of Korean Local Elites in the 1920s

Joo Dongbin\*

This research deals with the *Pyongyang (Heijo)* Municipal Assembly elections in the 1920s and the kinship-spatial changes of Korean local elites. During the 1920s, local assemblies were converted into restricted suffrage in colonial Korea. Voters were property class, settlers, and male householders. *Fu*(府), the administrative unit where the Japanese settlement corporations were converted after 1914, generally had a high proportion of Japanese voters, but Pyongyang was an exception.

Koreans from various backgrounds participated in the elections of the Pyongyang Municipal Assembly in the 1920s. Especially in the 1926 and 1929 elections, one-third to one-half of Korean-elects were professionals (lawyers and doctors), compared to one or two people in *Gyeongseong (Keijo)* and *Busan (Fusan)*. Law and medicine as modern knowledge were attempts to represent the inferiority of colonized Korean merchants and industrialists.

Second, the influence of Korean local elites in the old town (Korean town) had been strengthened. Unlike *Gyeongseong*, traditional Korean local elites settled down in the new town (Japanese town) for generations. Furthermore, the continuity of Korean members of the Assembly from the 1910s to the 1920s was stronger than in *Gyeongseong*. In the 1920s, Korean local elites in the new town of Pyongyang were based on the *Munjung*(clan organization). The blood-related order was maintained especially through the role of *Chambong* (grave keeper) of the royal tombs of *Gija* (箕子) and of King *Dongmyeong* (東明王). Meanwhile, the Korean local elites in the old town formed a central point through urban and industrial development such as the independent Korean commerce organization, the movement of electricity municipalization,

---

\* Ph.D Student,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Korea University.

and intervention with the old town development plan. This is considering that it was difficult for Korean local elites in the old town to even secure primary social networks such as blood ties and regionalism, to be never free from the blood order. *Suyangdonguhoe* with the *Dong-A Ilbo* branch, and other social organizations were also based on the opinion of local elites in the old town. However, the inclination of the regional order to the “old town Koreans” was put on hold owing to the revision of the Law of Municipality (府制) in 1930. Such changes in local communities were closely related to the self-narrative of “nationalists” made by Pyongyang local elites who fled to South Korea after Liberation.

**Key Words** : *Pyongyang* Municipal Assembly, Self-Strengthening Argument, *Dangun-Gija* Inheriting Consciousness, *Chambong* (grave keeper), *Munjung* (Clan Organization), the Professionals (lawyers and doctors), Merchants and Industrialists